



충청남도의회

VOL. 85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남의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충남의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85

차례



개회사	2
본회의	3
하트이슈	4
도정·교육행정 질문	5
5분 발언	19
의정 이모저모	2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9
주요안건 처리현황	39
의정토론회	52
연구모임	69
포토의정	79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아름답던 단풍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16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며 출발한 내포 신도시가 그동안 정주인구 · 산업단지 · 집단에너지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5백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의장이기 이전에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힘겨운 상황에서도 병원유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해 충청남도의회가 힘차게 활동했던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조례 제 · 개정 활동은 물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현장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의정을 수행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치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 11. 5.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본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 44개 안건 처리

- 도정 · 교육행정 ‘송곳 질의’로 지적 · 대안 함께 제시
- 행정사무감사 통해 성과 검증... 내년 도정 · 교육행정 살림 규모 확정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도정과 교육행정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고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76건(시정53건, 제안317건, 처리206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등 민선 7기 2년차 도정과 교육행정 성과를 면밀히 검증했다.

또 도정 · 교육행정 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영세 1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도 산하기관 인건비 양극화 문제와 도내 초등학교의 1급 발암물질인 ‘비소’ 검출 사태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내년 도정과 교육행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벌였다.

충남도 예산안 7조 7,835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3조 6,142억 원 등 총 11조 3,977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07억 원과 59억 9,565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메이지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올해 도의회는 임명직 단체장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 · 운영했고 집행부의 막대한 예산을 살펴보기 위한 전문인력 구성, 정책연구원 도입, 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신설과 의회 제도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등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가장 역동적인 1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핫이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2019. 11. 5.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11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교육행정 질문

이영우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보령화력 1·2호 조기폐쇄 대응책 수립 시급”

- LNG 복합에너지 전환 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노력 주문
- 역대 대통령 후보·도지사 공약대로 ‘보령 신항’ 개발 이행돼야

이영우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령화력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보령 신항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우려, 충남도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시점을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기기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한국중부발전은 조기폐쇄 대안으로 보령화력1·2호기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의향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지만,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당초 폐쇄 시점으로 반영돼 있다 보니 LNG 복합 대체에너지 전환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앞서 보령시민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광산 전면 폐쇄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다”며 “지역 유일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로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령화력 1·2호기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 후 “내년 12월에 폐쇄되는 보령1·2호기에 대한 대안으로 LNG 복합 대체에너지 발전소 설비를, 설치·가동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령화력 3호기와 4호기는 설계 개념상 한 쌍으로 이뤄져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3호기만 청정 화력개발 국가연구과제로 지정돼 성능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개선이 모두 이뤄진다면 LNG복합 발전사 평균 대기 오염 배출량보다 낮은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대체에너지 설비를 갖춘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32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밖에 보령 신항 건설과 관련 “보령 신항만 건설은 역대 대통령후보 및 도지사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시행을 강조했던 사항임에도 번번이 무산됐다”며 “보령 신항이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부두 2선석, 마리나항 300척, 크루즈 배후단지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충남도청이 2013년 내포로 이전한 후 도 산하기관 모두가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도유림 57%가 분포하고 있고 성주산 자연휴양림, 무궁화 수목원 등 산림자원 이용체계 등이 구축된 보령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제안한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관계 중앙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령 출신으로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등 풍부한 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재표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복지정책 ‘빈틈’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시급”

- 계층별 지원책에서 영세 1인 자영업자는 외면 받아와
-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시급… 해양 공공기관 유치·서산의료원 의료질 제고 등 주문

홍재표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영세 1인 자영업자 복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충남도는 아기수당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 농어민 수당 지원 등 계층별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7년보다 11% 증가한 23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다 보니 버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 폐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1인 자영업자 창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태안군은 태안읍과 남면 일원에 468만㎡에 달하는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고 도내 어업 인구와 어가구수, 부속도서수 1위 등 수산·해양분야에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태안 기업도시 내 유치에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또 “충남은 사고대비물질과 화학사고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서산의료원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사고 발생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업과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 같은 기업들이 출연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안면도 휴양림 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민·관·군 대규모 화재예방 합동 훈련과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 ▲석탄화력발전소·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관리 ▲권역형(충남권)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내포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비율 높여야”

- 내포보부상촌 2020년 개관 앞두고 운영 어려움… 비율 80%로 조정 요구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으로 편입토지 지정 제외 소유주 민원 유발… 개선 시급

방한일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개관을 앞둔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지원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방 의원에게 따르면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사업비 479억여 원을 들여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6만 3,784㎡ 부지에 보부상 역사유물관과 내포문화관, 체험공방, 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도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리 운영비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운영상 적자 우려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도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예산군의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자립도가 11.5%로 열악한 예산군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도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비로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를 50%에서 80%로 높이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또 “충남도가 사업을 위해 5년간 14만 9,000㎡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는데, 이 중 약 5만㎡만 매입해 편입토지에서 제외된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광 명소화를 위해 현재 제외된 토지까지 매입해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 의원은 이밖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유치와 세계 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 개선 앞장

- 공무직 인사이동 원칙 철저, 그룹홈·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이선영 의원이 정규직 전환된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언대에 올라 섰다.

이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곳곳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 중인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민원이 많다”며 “정규직 전환 이후 업무분장과 인사 이동, 불법적인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근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불안은 해소됐지만 전환 과정에서 아무리 오래 근무했더라도 최고 3호봉으로 제한해 임금을 주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가 이전보다 하락해선 안 되며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한 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에 관해서도 거주지, 출산, 육아 등 인사고충을 고려해야 하는 공무직 인사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초 도정질문때 요구했던 학대피해아동 쉼터 그룹홈 실태와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선 도지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그룹홈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종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그룹홈이 운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그룹홈을 양육시설로 지정해 종사자 임금체계도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시간외 수당을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만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내포 종합병원 유치 · 축산 악취 대책 마련해야”

-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계획 질의…
MOU 시행사 및 제반사항 점검 당부
- 조 의원 “혁신도시 지정은 도민의 여망…
충남도 향후 계획에 박차”

조승만 의원이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 점검에 나섰다.

조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중입자 암치료센터와 충남도의 협약 진행상황과 향후 실행 계획을 물은 후 “정체 중인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종합병원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동안 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국회방문 건의, 대책위원회 구성, 청와대 건의문 송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100만인 서명 달성 후 충남도 조치계획과 전망 등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포신도시에 충남혁신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홍성역에서 서울여의도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다는 도민의 꿈이 이제와 신안산선과 환승으로 계획이 변경돼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직결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꼽히는 악취 문제와 관련해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매년 22억 원을 지원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 및 악취원인업체 이전, 폐업 등 다양한 악취 저감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축산악취 전담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일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ASF 미허가 방역제품 사용’ 지적

- 국내 허가 22개 품목, 동절기 효과적 소독제
사용 제안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 ASF 소독 시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방역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축산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독 제품을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사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역용 소독제품 중 해외실험 기관에서 효력시험을 완료하고 국내 허가된 ASF 소독제 제품 22개 품목과, 소독 가능 권고 제품 등 총181개 품목을 안내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축산 농가의 방역용 소독 제품 대부분은 국내 허가 받은 제품이 아닌 소독 가능 권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제품 선택과 희석배수를 준용하는 것”이라며 “동절기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철에 영하 30도까지 소독 효과가 있는 과산화제제를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 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방역 교육과 인식 개선 확산에도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큰 독도 작은 재미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시가 빈발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원칙을 지키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비책 마련 속도내야”

- 내년 7월 시행… 도내 도시공원 120곳 약 1,190만㎡ 대상
- 필요재원 1조 8천억 원 추정… 대책마련 시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일몰제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영신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 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다.

한 의원에게 따르면 충남의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해당하는 27.4km²에 이르고, 추정 필요재원은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도내 실효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120개 지역 1,189만 2960㎡로 1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산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 16곳, 보령 15곳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충남도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전부를 집행하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내 꼭 필요한 공원과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은 주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우울증상 완화, 온도저감 등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 유지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과 찬성하는 환경단체 주장을 수렴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되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해 기초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초등학교 ‘비소’ 검출 대응 안일… 조속히 해결해야”

- 비소 검출로 분교 폐쇄… 학생·학부모 불편
- 교내 국한 정밀조사보다 주변지역 확대해야

정광섭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내 초등학교 ‘비소’ 검출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5km 내에 위치한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초등학교 B분교에서 기준치(25mg/kg) 이상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충남대학교 토양환경분석센터는 최근 조사결과 보고회에서 B분교의 토양오염 분석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10배 이상이 넘고 대책기준치(75mg/kg)보다 3배 이상 초과된 255.1mg/kg 까지 최고오염 농도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말부터 학생들을 9km 가량 떨어진 본교로 학생들을 통학시키도록 했는데,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근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강원도에 난 산불은 눈에 보이는 재난이라 신속하게 집이 지어지고 생필품이 지원됐지만 이번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 그런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어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보이지 않는 암 덩어리”라며 “분진을 타고 날아간다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곳에서 검출돼 오염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내로 국한해 조사하는 것보다 주변지역으로 확대해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내 15개 시군 중 태안이 1년차 교사가 제일 많은 것에 대해 “의욕있는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며 “경륜있는 선배 교사와 함께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미설치현황을 물은 후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과 최소화 노력을 당부했다.



전익현 의원

2차 본회의
2019.11.25.

장항 브라운필드 충남도 지원 방안 촉구

- 구)장항제련소 주변 브라운필드에 정화와 힐링의 국가상징 모델 조성 요구
-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정상 건립을 위한 충남도 추진방안 질의

전익현 의원이 토지오염으로 개발이 어려운 도내 브라운 필드 지역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을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전 의원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구)장항제련소 주변 브라운필드 지역에 국가적인 상징모델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브라운필드란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매립지 등 환경오염으로 도시개발이 어려운 부지다.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110만 4,000㎡를 정부와 서천군이 매입, 환경부 주관으로 2020년까지 토지정화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 토지이용계획 보안구역비 2억 원을 확보했으나 부처 내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집행을 보류 중인 상태다.

그동안 충남도는 지난 8월 국가균형위,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위주의 개발 방식보다는 환경적·정책적 관점에서 오염토지 재 자연화를 위한 생태·환경중심의 토지이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장항지역은 일제의 수탈, 제련소 가동중지, 토양오염 피해 등으로 아픈 역사를 겪어 왔고 정부가 대책 마련을 주민들에게 약속한지 10년이 지났다”며 “2020년 오염토양 정화사업도 끝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인공 습지, 국가정원 등 정화와 힐링의 한국형 생태환경복원 상징모델 구상 계획, 국가적 생태거점인 서천갯벌과 유부도를 연계한 도 차원의 활용방안 마련,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국가 정책 전환 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이 대학정원과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과 학교 운영상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국립 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R&D지원, 장항 국가생태산단 등이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시 강점으로 작용한 만큼 당위성을 살려 건립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가축질병 처리 방식 개선해야”

- 매몰지 부족, 조성·관리비용 등 문제… 소각 처리로 바뀌야
-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자부담 제외 주장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수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은 발생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며 기존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통한 처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2010년부터 가축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모두 584곳으로, 이 중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홍성에만 158곳이 들어섰다.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매몰관리대상 지정 후 3년이 지난 549곳이 해제됐지만 잔존물 등의 이유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는 재사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매몰지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도내 매몰지 중 3년 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사체 소각과 퇴비작업 등 사후처리 비용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와 매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매몰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방식 대신 소각처리를 통해 폐사 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사육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사업 자부담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부담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김명숙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충남형 농어민수당 지원방식·규모 개선해야”

- 농가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수준…
실효성 의문
- 김 의원 “60만 → 80만 원 늘리고 개별 지급해야”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어민수당’의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숙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농민수당 지원액 60만 원을 최소 8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농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제안한 농민수당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 농가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액만 15만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한 데다 매달 5만 원으로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의 농지 보유면적은 평균 1.37ha인 반면 유럽은 평균 40~50ha, 호주는 373ha에 이른다”며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각종 직불금을 통해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도 질책했다.

그는 “충남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2018년까지 16.1%까지 차지했지만 2019년은 14.9%, 올해는 14%에 그쳤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5.16% 증액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 이 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간다. 스위스는 농업예산 85%를 농민에게 직접 준다”며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하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매달 일정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 별도 소득이나 실제 경작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한 기관이나 단체, 조합 등에 지급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이 10 원이라도 잘못 사용됐다면 바로잡아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충남도 산하기관 인건비 양극화 여전… 재정사업 평가도 형식적”

- 지난해 지적에도 기관별 연봉 큰 격차…
개선 의지 불분명
- 충남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괴리 현상 발생

충남도 산하기관이 여전히 양극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지적된 기관별 인건비 격차에 대해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연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짚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에서 수당 종류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수당을 늘려 양극화 현상을 더 악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최하 1,200만 원에서 2,800

만 원까지 직급 변동없이 기본급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의 지난해 충남 출자·출연기관 일반정규직 평균연봉을 제시하며 “충남연구원은 7,400만 원, 충남청소년진흥원은 2,9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연구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수준 차이나 일의 강도에 따라 이렇게 연봉 수준이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건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예산 과다책정 등 허술한 관리 실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은 개최되지도 않아 전액 불용이 되었음에도 자체 평가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며 “최종 평가결과 사업관리 적정성 부분에서도 45점 만점에 24점으로 ‘보통’ 평가를 받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과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이듬해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민 혈세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더욱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금봉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충남도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및 강화대책 시급”

- 소극행정으로 불법폐기물 방치…
처리율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밀돌아
- 원인 · 현황 파악 등 객관적 대책 마련 주문

양금봉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환경부가 전국 불법폐기물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35개소에 총 120만 3,000톤 가량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불법폐기물은 23개소 2만 8,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불법폐기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치가 계속 증가 또는 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남은 같은 해 7월 불법폐기물이 3만 6,000톤으로 8,000톤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부여군 초촌면 방치폐기물의 경우 성상분석 결과 2만톤이 아닌 3만 4천톤으로 분석됐고, 다른 지역에 동물뼈 등 약 2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충남은 올해 7월 기준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46% 대비 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선 의지에 의문부호가 불고 있다.

양 의원은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1%, 충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남과 전북도 각각 74.7%와 51.8%를 기록했다”며 “국가 추경 지연에 따른 상황은 다 같음에도 충남만 지체된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지시했고 양승조 지사 역시 불법폐기물 잔여량 3만 2,316톤 중 4,770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과 현황 파악 없이 실적에만 얽매이다 보면 역효과만 나게 된다”며 “폐기물관련법 개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제로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서천군이 미래가치인 생태 · 환경 ·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쓰레기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도민과 학생들의 생활 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운영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촉구

- 학교 떠나는 이유 다양하지만 지원사업은
입시 교육 위주
-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재학생 차별 격차 해소
방안 도입 요구

여운영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 내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건강검진 등 보편적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7년 1,734명에서 2019년 1,851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검정고시 등 입시 위주 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교생의 경우 전체 1,072명 중 1,051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 중단율도 특성화고가 3.6%, 특목고 2.3%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이나 음악, 체육 분야 수업은 전무할 뿐더러 지원 정책 규모 면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학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연간 1인당 1,6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50만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업시 학력에 따른 제한은 물론 예체능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이 재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도와 교육청이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대안 교육기관을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불량하고 능력이 없다는 편견과 달리 악동뮤지션처럼 다양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믿음, 맞춤형 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촉구를 위해 토론회 개최(2019. 10. 18), 5분 발언(2019. 5. 17.)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장현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청소년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 대책 절실

- 청소년 유스호스텔 공급 위해 서남대 아산캠퍼스 부지 활용 필요
- 삼성 13조 대규모 투자, 화재의 시간 놓칠 우려 있는 만큼 도시개발 사무위임 시급

안장현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현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충남도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에 1개 이상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 207개 읍면동 가운데 12개만 설치돼 있고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공주, 계룡, 청양, 부여군은 설치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업 성적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생들의 행복도는 하위권에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 부족”이라며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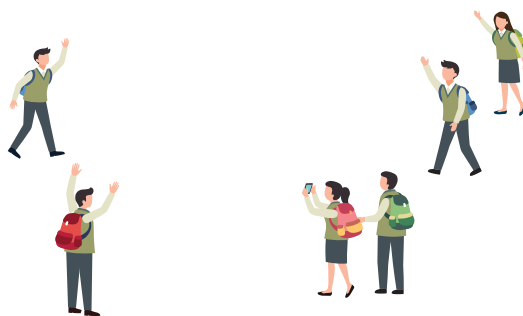
호스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권역별 유스호스텔 설치를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남대 부지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양호하고 넓은 부지와 큰 건물이 있는 만큼 지방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남대 폐교 부지의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아산의 경우 도시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적기를 놓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도시개발 관련 사무위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천안과 아산의 경우 도시개발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개발 사무의 위임 여부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도시개발 속도 차이로 인해 천안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그 결과 인접 도시 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접 도시가 서로 상생하고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관련 사무의 위임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권 의원

3차 본회의
2019.11.26.

충남도 청년수당 도입하자

- 낮은 인지도 · 예산 중복 등 문제…
직접 · 보편적 지원 개선 필요
- TF팀 활성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
업무효율성 제고 요구

충남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권 의원은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3,577억 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일자리관련 총 13개 사업은 이름만 달랐고, 창업

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직접 대신 기업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청년 일자리사업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인식률은 21%에 그쳤다. 특히 청년 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매우 저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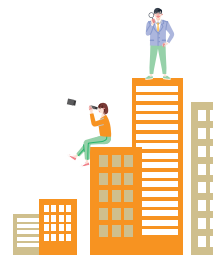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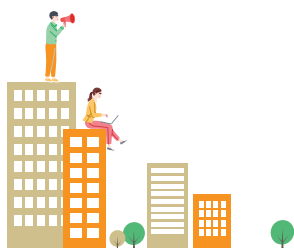
올해 충남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 5,500만 원, 직접지원 사업은 전체 15% 가량인 86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직접지원된 예산의 반 이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인 만큼 정보를 접하기 쉽거나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고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실업)수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진행과정에서 부서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 1회 회의 방식이 아닌 TF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5분 발언



이계양 의원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19. 11. 5.

“중견기업 지원기반 미흡… 대책 시급”

- 정부, 타 지자체 중견기업 육성 적극… 충남은 전담부서·인력 전무
- 지원시스템 점검, 종합적인 재정비 시급

이계양 의원이 도내 중견기업 육성·지원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017년 기준 4,468개로, 고용은 136만 명, 매출은 738조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도 올해 초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1조 클럽 80개, 중견기업 5,500개, 수출중견 50% 달성을 목표로 대기업 의존과 수도권 중심에서 독립형·지역거점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경우 ‘부산형 히든챔피

언’ 등 지역내 강소기업들의 관계망 형성과 기업군별 포럼 운영, 정보 공유, 기업별 대응전략 구축 등 제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도내 중견기업 수는 196개로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지만 집행부에는 담당부서와 전담인력은 전무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중견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중소기업의 30배이며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임금수준과 장기재직 보장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의원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19. 11. 5.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 촉구

- 도내 다문화학생 연내 1만 명 돌파 전망에도 학업중단사례 여전
- “취업·진학 및 심리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협조체계 마련 시급”

김옥수 의원은 11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내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기준 9,3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4.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매년 10%가 넘는 증가세로 볼 때 올해 1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기초학력 미달과 학교폭력, 상급학교 진학 포기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0%로 매우 낮다”며 “국민 전체 진학률과 비교해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격차는 1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다문화가정 초·중·고교생 학업중단율은 0.77%로 전국 시도 평균(1.16%)보다 낮지만 고교생 중 학업부적응 또는 퇴학으로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학 등 상급학교와 사회진출을 앞둔 고교생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서 의원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019. 11. 5.

“백제문화제 부여·공주 격년제로 열자”

- 한정된 예산, 양 지자체간 행사 중복성 등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 “선택과 집중 통해 문화제 질 높여야”

김기서 의원이 11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매년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 개최하는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열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백제문화제를 온전하고 고유한 색깔의 행사로 계승·발전시키고 부여와 공주 양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다시 격년제 개최로 회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제문화제는 1955년 부여군에서 ‘백제대제’라는 명칭으로 1965년까지 삼층제와 수륙제 등 제향 위주로 단독 개최해 왔다.

이듬해(1966년) 공주시가 부여군에 ‘백제문화제’라는 명칭으로 공동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1978년까지 양 지자체에서 동시 개최, 1979~2006년의 경우 짝수해에는 부여,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열어 왔고 2007년부터는 부여와 공주 통합개최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방식의 경우 행사의 유사성에 따른 비효율적 측면은 물론 양 지자체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우려되기에 격년제 개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부터 1,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성백제 문화제 발굴과 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칭 세계대백제 문화축제를 서울과 충남, 전북 등에서 순회 개최를 꾀하고 있다”며 “향후 500년 한성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서울과 전북 익산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격년제 개최”라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아산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서둘러야”

- 학교장 입학전형, 명문고 진학 위한 지나친 경쟁 촉발
- 학교간 서열 방지·균등 교육기회 제공 위해 교육감 전형 필요

조철기 의원이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 입학전형(고교평준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장 전형으로 인한 줄 세우기식 맹목적인 경쟁보다는 교육감 전형을 통해 고른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안정된 충남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아산지역은 2014년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감 입학전형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해 ‘천안에 이어 교육감 입학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취임 5년이 지났음에도 도교육청은 두 차례 연구용역과 공청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학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육감 전형

이 필요하다는 결과만 발표했을 뿐 여론조사 실시 등 후속 조치 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교육감 전형이 도입된 천안을 제외하고는 학교장 전형이 시행 중인 나머지 지역의 학생들은 명문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는 물론 사교육 부채질과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내뺄은 약속마저 미루고 있는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이공휘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공유재산 불일치 해결 위해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충남 도 본청 및 15개 시군 자산대비 불일치 평균 48.6%에 달해
- 회계결산, 공유재산대장 간 차이로 공유재산 불일치 발생…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시급

이공휘 의원은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장부와 공유재산대장으로 사실상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을 양산하며 각종 토착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규모는 476조 1,000억 원이지만 광역시·도의 별도 대장의 경우 304조 5,000억 원으로 등재되는 등 대장 간 170조 원 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자산 대비 불일치 비율은 평균 48.6%로 나타났고 △청양(71.2%) △본청(62.1%) △부여(61.5%) △당진(5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공유재산과 e-호조시스템 연계시 재산 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입목죽 등 미등재한 재산 1만 5,327건 약 8조 689억 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며 “재무회계 결산의 재산평가는 복식부기에 의해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공유재산 결산방식의 재산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인식하지 말고, 도 모든 실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충남도 조직개편 부적절”

-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 교통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이관 추진
- “교통약자 대상 포괄적… 센터 운영도 미흡”

황영란 의원이 충남도 조직개편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황 의원은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장애인 관련 정책과 업무가 모두 장애인부서로 쏠렸던 적이 있었지만 명백한 차별행정이었기에 현재는 장애인 생애 주기에 따라 각 부처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의 임시방편적 조직개편은 찬성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엄연히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우리도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근거, 교통정책과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차량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승재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도립박물관 건립 서산이 최적지”

- 역사성 · 문화재수 · 접근성 등 측면에서 서산 건립 타당
- “전국 흩어진 1만 4천 여점 문화재 고향으로 돌아오길 기원”

충남도립박물관 최적지가 서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출토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서다.

장승재 의원은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도립박물관 서산 건립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위치가 문화재 발굴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서산은 도내 유 · 무형 비지정문화재 수 1만 4,318건(명)으로 가장 많고 시군별 유 · 무형 지정문화재도 77건(명)으로 15개 시군 중 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내에선 서산과 계룡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다”며 “문화재는 많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 국립중앙박물관 등 17개 기관 · 단체가 서산의 문화

재를 대신 보관해주고 있고 심지어 전남과 충북에 97점이나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서산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의 연속성이 탁월하다”며 “삼한시대 이전부터 금강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내포문화권 중심 또한 서산이었다. 그 증거가 바로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 475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교통접근성은 물론 인근 태안, 당진과 연계하면 공주나 부여, 경주 같은 수학여행 코스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문화균형 측면에서 서산에 박물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석곤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다시 개최하자”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해외 저가 인삼으로 ‘이중고’
- “조레 근거해 네 번째 엑스포 개최 계획 조속히 검토해야”

김석곤 의원은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인삼 중추지인 충남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다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삼의 관세율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삼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중국과 캐나다의 값싼 인삼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는 등 금산의 경제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3차례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지만 최근 경북 영주시가 2021년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서 도민들은 엑스포 개최를 지속하지 못해 크게 아쉬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인삼의 70%가 금산에서 유통되고 지난해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금산의 전통인삼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했다”며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지난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정례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며 “엑스포가 5년을 주기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그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홍기후 의원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2019. 12. 16.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서비스 부재 심각”

- 도내 희귀난치성 시설 및 치료사 부족… 대기시간도 수개월 이상
- 보건소 활용 재활치료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제안

홍기후 의원이 12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서비스 부재를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이 물리·재활치료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게 따르면 도내 희귀난치성 질환아동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 가능 시설이 14곳뿐이며 치료사 역시 92명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 시설이 있어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순번이 되어 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려 해도 대중교통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장애인택시도 병원으로 이동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하루 이용비용만 12만 원 이상 소요된다.

홍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치료사를 확충해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경증과 중증, 연령별로 구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희귀질환에 걸린 아이를 위해 발만 동동 구르는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들을 위한 해안을 내놓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 이모저모



음압구급차 구입 임산부 전용구급차 시범운영 제언

● 음압구급차 구입해 임산부 전용구급차로 병용 제언

김대영 의원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지난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음압구급차를 구입해 임산부 전용구급차로 시범운영해 줄 것을 제언했다.

이런 제언은 소방본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 ‘아이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임산부 119 서비스에 대한 보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타 기관에서는 음압구급차를 구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1대의 음압구급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 아무리 좋은 음압시설이 있다고 해도 119 구급차가 전염병 환자를 잘못 이송하면 다른 환자의 전염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119구급차는 넓지 않은 내부 공간에 많은 응급의료장비를 적재하고 있고, 응급의료사와 보호자 등이 탑승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대형구급차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량기업 지원 ‘앞장’

- 우량기업에 지방세, 보조금 등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김명선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이 도내 우량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도록 지방세, 보조금 등 지원이 가능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에 있는 우량기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기업이 16개나 된다”며

“단순 이전이나 폐업이 아닌 시설을 확대해서 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15개 시군 우량기업에 신규 투자액을 일정 부분 이상 한정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타이머’ 도입, 효율적인 예산심사 방안 모색

김복만 의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에서는 2019년 마지막 회기인 제316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사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결위 사전 간담회에서 발언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정했으며, 19명으로 구성된 예결위원 간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핵심적이며 시의 적절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을 경우 발언 기회가 모두 돌아간 뒤 충분한 질문시간을 다시 부여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도 했다.

이 타이머 제도를 통해 위원과 집행부 양측 모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회의가 훨씬 간결해졌고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학생 안전관리 허점 투성

- ‘자격 논란 수영 강사 수두룩 수질검사 제각각’,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통해 질타
-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전 학년 실시, 생존수영 교육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제안

김은나 의원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 교육위원회)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생존수영 교육여건과 수영장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아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총 60개소(지역별 중복 이용 수영장 포함)가 있다.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각 2개소씩이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기별로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나타났다. 2017년~2018년 두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도 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 학생안전에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충남 조현병·우울증 환자 증가 ...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증세·지역별로 격차 ...
자살위험군 대상 맞춤형 전후 대책마련 촉구

김한태 의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쓴 충남도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 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해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진료 접근성 강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4만 2,191명으로 전년 대비 7%나 상승했고 같은 기간 조현병 환자도 1.4% 증가한 1만 5,135명으로 늘었다.

환자 분포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의 경우 ▲천안 1만104명 ▲아산 6174명 ▲논산 4,001명 순으로 많았고 계룡이 580명으로 가장 적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천안 3,281명 ▲논산 1,984명 ▲아산 1,858명 ▲홍성 1,045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자살시도환자 중 35%가 자살을 재시도하는 만큼 이들이 알맞은 회복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사후관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제문화제추진위 존재 의미 의문

● 백추위 발족 후에도 차별성 찾기 어려워 ... 역할도 미미

최 훈 의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 문화복지위원회)이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백추위)의 존재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원회가 생긴 후에도 그동안의 축제와 차별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역할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 의원은 지난해 백제문화제추진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축제를 위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미진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백추위 예산안 10억 원 중 경상비가 9억 원을 차지했다”며 “예산만 받아 입찰만 주는 등 이벤트회사 수준의 역할에 그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한된 지역의 행사에서 탈피하겠다고 말로만 제시했을 뿐 정작 운영의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타 시군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모 형식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공주와 부여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 안정화 촉구

김기영 의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 안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예산2, 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해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관장 공석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현재 복지관은 지난 6월 전 관장이 사임한 이후 채용 관련 잡음이 끊임없이 일면서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인사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자진사퇴했고, 최근 발표된 관장 채용 공지에는 후보자 한 명이 2차 면접까지 봤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이 무산됐다.

또한 관장 채용 공고기간 중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조건을 변경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장 채용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관장을 채용해 하루 속히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학 가봐U앱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2019년 9월 30일 기준 다운로드 426건에 불과

오인환 의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학 가봐U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학 콘텐츠 확대 요구에 따라 제작된 충남학 가봐U앱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역사문화 유적을 더욱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650만 원의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앱의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앱 다운로드 실적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372건, iOS 앱스토어의 경우 54건에 불과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 시대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충남학 가봐U앱이 교육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맹활약

- 도민 안전위해 CCTV 200만 화소 이상 유지필요
- 자치경찰제 도입 앞서 지방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자치경찰 처우문제 고민해야

조길연 의원



지난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길연 의원(부여2, 행정자치위원회)은 “CCTV 설치비율이 시군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서천은 청양보다 인구도 많은 데 설치대수는 훨씬 적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설치가 필요하며, 도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최소 200만 화소 이상되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으로 인한 불분명한

업무영역 및 이에 따른 치안공백 발생우려,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경찰 처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의 활발한 질의답변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道조직개편안 승인... 도민 지향적 운영 당부

-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기구 조례안 심사서 짚은 조직개편 지적
- 데이터 분석 통한 조직개편, 도 상징물 홍보 등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1월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안장현 의원은 "일부 부서 명칭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신설되는 도민참여정책팀의 경우 도민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만큼 명칭을 '도민권리증진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산업팀도 산업안전팀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우 의원은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로 행정기구 개편이 벌써 세 차례나 된다. 짚은 조직개편은 도민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부서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업무를 조금씩 이관해 하나의 국 단위 부서를 만드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도 "짚은 조직개편은 도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저출산보전복지실장을 2급으로 상향하는 만큼 도정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문제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의원은 "조직개편은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인 만큼 도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해

220만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선영 의원은 "신설되는 미세먼지관리과는 업무가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라며 "대기 뿐만 아니라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길연 의원은 "행정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는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있으나 도의회 부의장은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도정의 양측인 도의회의 부의장이 의장 대신 행사에 참석할 경우 혼자 주차하고 행사장에 어렵게 오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의원은 "도정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내부살림을 관리하고 시군과 협업을 하는 자치행정국 등 두 부서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타 실국과 협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중앙협력본부의 경우 중앙부처 상황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등 역할에 맡은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시도의 재정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장비확충과 처우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의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있고 산업도 융복합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 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현 부위원장



조길연 의원



홍재표 의원



오인환 의원



이선영 의원



이영우 의원



한영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대상별 균등한 예산 편성 주문

-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심사서 형평성 초점 강조
- 장애인관람석 설치·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 등 소관 조례안 3건 원안가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2월 2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이 2조 1,307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6조 2,760억 원의 34%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큰 만큼,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이나 통합 등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연 위원장은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사업의 경우 혜택 체감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가 서로 다르다”며 “도와 교육청 등의 연계를 통해 도민 모두가 차등 없는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비장애인을 위한 사업 및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훈 의원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혜택 대상이 과도하게 좁게 되어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근거 조례 개정 등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만 특정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병기 의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감축 및 일몰 사업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제3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증액했다”며 “기관을 위한 복지가 아닌 당사자를 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옥수 의원은 “올해 안으로 서산시 보건소 재활치료실 기능보강 및 공중보건 관사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각종 치료실 기능보강과 의료진 근무·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며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언론 홍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역 활동가 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 위원장



김옥수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김한태 의원



여운영 의원



정병기 의원



최 훈 의원



황영란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민 건강 · 재산권 위한 국비확보 ‘한목소리’

-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1원 인상 근거마련 당부
- 대기오염물질 무인시설 측정 활용 등 제안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국비 확보에 힘써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 구입 예산과 관련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 당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적극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이동측정차량 구입비는 고액이 드는 만큼 국비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추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비 대신 무인측정시설 등을 활용해 조직을 확대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선 의원은 “타 지역 대비 충남 서해안 지역에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이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등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의원은 “실과별 소통 부족으로 중복사업이 많다”며 “앞으로 예산편성 전 실국별 소통을 활발히 해 중복사업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환경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장비의 사용 가능 연한이 설정돼 있더라도 정밀한 환경오염 분석과 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장비에 투자하여 도민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기서 의원

김명숙 의원

김영권 의원

방한일 의원

양금봉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도민 안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 당부

• 재난안전실 소관 3회 추경·내년 본예산 심사 …
재난예방·하천정비 사업 등 검토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1월 28일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과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사업에 사용되는데 올해의 경우 재난예방사업 추진시 30개소 37회에 걸쳐 사업변경이 승인됐다”며 “계획 변경으로 사업 완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도 전환 사업 예산이 39억 8,600만 원 감액된 528억 2,3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감액 사유와 문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섭 의원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온열의자, 한파쉼터 단열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과 유동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영 의원은 “우수저류시설과 그늘막 설치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며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도 위원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지진 관련 교육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계양 의원은 “안전무시 관행 개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시 성과와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만 의원은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 지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위험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의원은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와 재난 발생시 신속 하게 투입 가능한 인력·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난시 현장 수습과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532억 9,996만 원, 2020년도 예산안 2,042억 6,315만 원, 재해구 호기금 409억 5,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9억 6,000만 원이다.



장승재 위원장

전익현 부위원장

정광섭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형도 의원

이계양 의원

조승만 의원

지정근 의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교육행정 업그레이드 올인’

- 6일 연구정보원 등 12개 직속기관 교육행정 전반 성과 평가, “고삐 더 조여라” 주문
- 벌어진 틈새 매우는 송곳 질문 감사장 후끈, 각종 사업 및 예산 점검평가 작년과 달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1월 6일 충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교육행정의 벌어진 틈새를 매우기 위해 사업과 예산, 정책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물어 첫날부터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옥동 의원은 “충남도교육청 청사의 경우 2013년 내포청사 이전 이후 현재 2013년보다 81명 증원된 458명이 근무하면서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충남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과별 직무연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석곤 의원은 2020년 에듀파인 전면 시행과 관련, “도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속도 개선과 에듀파인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은 “교직원관사 사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숙소임차를 매년 계약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관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관사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일 의원은 “2014년부터 도교육청 공무원의 공가 부적정 사용이 매년 반복되었는데, 공가 사용 직원에게 근거 서류를 받는 등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향후 조치가 있었냐”며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남부평생교육원 중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되어야 할 프로그램이지만 남부평생교육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매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가정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의원은 “교육행정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본청 일부 부서를 비롯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예산과 인력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의원은 “현재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수련원과 해양수련원의 경우 일부 학교만 참여 신청이 국한되어 있어 대상학교 선정 시 신규 참여 학교를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의원은 “해양수련원의 주중 공실률이 높고 교직원에 비해 학생 이용자의 비율이 저조하다”며 그 이유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이종화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수 의원 김은나 의원 조철기 의원 홍기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충남도 본예산 107억 원 삭감

• 도민 위주의 사업 반영, 불요불급 예산 조정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2월 10일과 12월 11일 이틀간 2020년도 충남도 본예산 7조 7,835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심의해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07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37억 7,819만 원보다 30억 7,730만 원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역 현안이나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예산에 대해선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조정했다.

상임위별 삭감규모는 ▲행정자치 5건 59억 6,850만 원 ▲문화복지 17건 23억 5,397만 원 ▲농업경제환경 26건 20억 1,850만 원 ▲안전건설해양소방 4건 9,800만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삭감액 57억 5,000만 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삭감액 5억 2,000만 원) ▲연구조사동 환경개선공사(삭감액 4억 원)

등이 지원근거 조례 보류, 사업 일몰 및 불요불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 사업(삭감액 7억 원)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삭감액 5억 원) 등도 사업비 과다계상을 이유로 감액 조정됐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은 “상임위원장단과 예결특위 위원들 간 사전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으로 쟁점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혈세가 한 톨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같은 기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3건 1억 5,46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강권역친환경적발전 특별위원회

도민 · 전문가와 ‘활력 넘치는 금강하굿둑’ 모색

• 20일 서천 문예의전당서 정책토론회 개최… 금강하굿둑 수질 개선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1월 20일 오후 2시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금강의 하굿둑 구조 개선과 수질 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 위원장인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명지대 이창희 교수와 충남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과 충남연구원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황선도 관장, 세종지속발전협의회 최병조 사무처장, 하이드로코어 구분경 이사, 충남도 최문희도 균형발전담당관, 금강생태문화학교 김억수 교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창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수유통 방법론보다는 해수유통 목적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분적 해수유통의 경우 대부분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해수유통 목적을 기수생태계 복원과 회유성 어종 통과 등 효과가 명확한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란도 개발사업과 수변 생태도시 상호 협조 등 상시 해수유통을 전제로 상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간 한시적 논의기구인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금강하구정책협의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금강과 금강유역의 환경 변화를 설명한 후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이 큰 갑천과 미호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강하구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해수순환이 필수적”이라며 “배수갑문 운영관리와 구조개선을 통한 해수순환 방안을 도입하고 백제보-금강하굿둑 연계와 보단력 운영을 위한 정부부처와 충남·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는 물론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적의 정책대안으로서 도정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강화특별위원회

학교현장서 공교육 활성화 모색

• 논산고 · 충남과학고 교육과정 참관... 애로사항 · 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옥동)는 11월 21일 도내 일선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학생 중심 교육과정 · 프로그램을 편성 ·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인 논산고와 도내 유일한 과학 특목고인 충남과학고를 방문해 다양한 특강과 동아리 활동,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개선점을 살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고생한 교직원을 위로하는 한편,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사 운영 등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담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채택

- 친일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윤봉길 의사·조헌 의병장 표준영정 아직도 제자리
- 김영권 위원장 “지정 해제 사유 충분함에도 관계부처 개선 소극적”

충남도의회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1월 22일 특위 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을 채택하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했다.

이 건의안은 친일행위가 명백한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 해제 사유가 아니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신청을 반려했었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작가의 행적이 역사 정의와 교육가치 실현에 배치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일제와 싸우다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조헌 의병장의

표준영정까지 친일화가에 의해 제작돼 우리 지역에 봉안돼 있는 것은 선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애국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표준영정 교체를 위해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지역 향토사학자 및 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과 도내 일본식 표기 지명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비석(공덕비) 등 조형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위원회

연구성과 활용방안 찾는다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 활용방안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가 올해 연구성과 결과물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정책위는 11월 2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위 위원,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집행부 관련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 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지역 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가칭)충남 농민기본 소득 보장방안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충남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등 6건에 대한 결과 보고와 활용

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위원들은 각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충청남도 재정관리 조례’ 제정 등을 제언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이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으로 반영되고 자치법규로 입안돼 22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연구 등 왕성한 활동으로 정책위 운영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16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46건

조례안 29, 동의안 7, 예산안 7, 결의안 2, 건의안 1 /
원안가결 37, 수정가결 9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결의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 김득응(대표)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정병기 의원	원안가결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
동의안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아산시민프로축구단」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동안 창단지원금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원 협약 체결 - 지원액 : 충청남도 도비 연간 20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창단 후 자립기반 마련하는 동안 (5년)
건의안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충청남도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친일 행각을 한 작가에 의하여 그려진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조헌 의병장 등 도내 주요 사적 표준영정을 교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 구성 (도의원 5, 외부 전문가 6)
조례안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안장현(대표) 김대영, 김명선, 김은나, 양금봉, 방한일, 김한태, 이공휘, 조길연, 홍재표, 오인환, 이영우, 한영신, 이선영 의원	수정가결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 적극행정 심의 및 의견제시를 위해 지원위원회 설치 -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형도(대표) 전익현, 장승재, 이계양, 지정근, 김대영, 조승만, 김명선, 김 연,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기관으로 정의 - 지원을 원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조례안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명숙(대표) 이공휘, 안장현, 오인환, 이영우, 한영신, 김옥수, 홍재표, 김은나, 한옥동, 김명선, 김명권, 양금봉, 장승재, 오인철 의원	수정가결	- 충청남도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도의회 예산 심의권 확보 - 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 내용 범위 규정 -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후관리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실·국 설치 등 조직 자율성 확대 및 행안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기구·정원을 보강하여 민선 7기 복지·환경·경제 및 해양신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추진강화 - 일반직 2~3급 정원 2명 → 3명으로 1명 증원 ▷저출산보전복지실장 직급 상향(3급→2·3급 복수) - 정원 조정 ▷총 정원 : 5,423명 → 5,490명 (+67명) ▷집행기관 정원 : 1,897명 → 1,958명 (+6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 86명 → 92명 (+6명)
조례안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충청남도 상징물을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관리·사용하고자 제정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 구성)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동의안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1개 기관, 3,858,000천 원 - 출연기관 : (재)충남 테크노파크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 3,783,000천 원 -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 75,000천 원
조례안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 조승만(대표)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양금봉, 김복만, 오인철, 홍기후, 조철기, 지정근, 전익현, 김대영, 장승재 의원	원안가결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도모 - 불법촬영 예방 계획 수립·시행 규정 -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전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황영란(대표)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김명숙, 김영권 의원	원안가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노인·임산부 등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 최적관람석에 장애인 등의 사용 표기 -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최적관람석 설치와 대상의 근거 법령 추가
조례안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연(대표) 김옥수, 최 훈, 김한태, 정병기, 황영란, 김기영, 여운영, 안장현, 이공휘 의원	원안가결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 기여 -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의 지원대상 규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항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 훈(대표) 김 연, 김옥수, 김기영, 지정근, 여운영, 정병기, 황영란, 이선영, 김한태 의원	원안가결	•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복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체육소외계층”, “체육복지”정의 신설 - 장애인을 비롯한 체육 소외계층 지원 대상 확대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 7. 1 부터 기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등급 용어 개정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수정
조례안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명선(대표) 김득웅, 김복만,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안장현, 황영란, 김한태, 정광섭, 여운영, 김은나, 조승만 의원	원안가결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국토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산불방지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명선(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안장현, 황영란, 김한태, 정광섭, 여운영, 김은나, 조승만 의원	원안가결	•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추구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시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기서(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영권, 김명숙, 양금봉, 방한일, 조승만, 김한태, 김대영 의원	원안가결	•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민박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 농어촌민박사업 홍보·마케팅사업, 안전장비 등 재정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연(대표) 이공휘, 최 훈, 김한태, 김옥수, 김기영, 정병기, 여운영, 황영란,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의원	원안가결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원하여 사회 통합 실현 - 사회적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지원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조례안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김명선(대표) 김득응, 김영권, 양금봉, 방한일,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지정근, 조승만, 전익현, 이계양 의원	원안가결	•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원 체계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로 규정 - 3년마다 시행계획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양금봉(대표) 방한일, 김기서, 김명선, 김복만,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전익현, 황영란 의원	원안가결	• 사업장 소재지와 거주지가 충남에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 의무 부여 - 창업 관련 정책 수립 등 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조례안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영권(대표) 방한일, 양금봉, 김득응,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오인환, 조철기, 조승만, 이영우, 지정근, 김석곤, 조길연, 여운영, 안장현, 김형도 의원	수정가결	•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 - 악취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실태조사를 규정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조례안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지사	수정가결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장승재 (대표) 조철기, 김옥수, 김영수, 조승만, 정광섭, 이계양, 지정근, 김대영 의원	원안가결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육지 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 보장 -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급대상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이계양(대표) 김대영, 지정근, 정광섭, 한옥동, 김은나, 김명숙, 김영권, 이영우, 황영란, 전익현, 김형도, 조승만, 장승재 의원	수정가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수근로자의 충원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원 중단 사항 규정 - 재정지원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하고 결과 공표
조례안	충청남도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정광섭(대표) 김대영, 이계양, 안장현, 전익현, 조승만, 김복만, 김명숙, 장승재, 한옥동, 조길연, 김은나, 김옥수, 김한태, 김기영, 김석곤, 김명선 의원	원안가결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강화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위임, 위탁 관련 조항 신설
조례안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지정근(대표) 김대영, 이계양, 김한태, 조철기, 양금봉, 조승만, 오인철, 홍기후, 최 훈, 의원	원안가결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명시 -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확대 - 포상 물품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정함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김대영(대표) 이계양, 지정근, 정광섭, 김은나, 김명숙, 김영권, 한옥동, 조승만, 전익현, 장승재, 김형도 의원	원안가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사항 반영 - 조례명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소집수당 1일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계양(대표) 조승만, 홍기후, 이영우, 정광섭, 전익현, 장승재, 양금봉, 지정근, 김명선, 김명숙 의원	수정가결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공간 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 구성
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도내 전 가구 확대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 ▷도내 모든 주택 중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주택 -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기구명 변경 ▷조례 제6조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교육감,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 위임 사항 일부 조정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제5조) ▷ 평생교육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정원배정 내) 보수에 관한 사항 ▷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교육장 위임 사항 중 일부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 ▷ 직속기관의 신설,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설 사업 ▷ 학교신설 사업(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 제외)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증원분과 학교신설 등 변동요인 반영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개정 ▷ 지방공무원 정원 : 4,107명 → 4,156명(49명 증원) -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 일반직 : 3,769명 → 3,812명(43명 증원) ▷ 특정직(교육전문직) : 320명 → 326명(6명 증원)
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별표3, 별표4 개정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변경 - 건물 (단위 : m²,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소재지</th><th>면적</th><th>기준가격</th></tr><tr><td>가칭 '내포꿈두레학교'</td><td>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6필지</td><td>12,911.045</td><td>24,866,000</td></tr><tr><td>구. 덕산고등학교</td><td>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2외 2필지</td><td>574.02</td><td>239,891</td></tr><tr><td>합</td><td>계</td><td>13,485.065</td><td>25,105,891</td></tr></table>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6필지	12,911.045	24,866,000	구. 덕산고등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2외 2필지	574.02	239,891	합	계	13,485.065	25,105,891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6필지	12,911.045	24,866,000																																						
				구. 덕산고등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2외 2필지	574.02	239,891																																						
				합	계	13,485.065	25,105,891																																						
				• 취득 - 토지 (단위 : m²,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h>기준가격</th></tr><tr><td>가칭 '천안성성2유치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td><td>잡외</td><td>3,278.6</td><td>5,048,000</td></tr><tr><td>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td><td>학</td><td>14,071.8</td><td>21,680,000</td></tr><tr><td>가칭 '천안성성2중학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td><td>전외</td><td>14,477.7</td><td>22,300,000</td></tr><tr><td>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td><td>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td><td>학</td><td>13,000</td><td>1,442,000</td></tr><tr><td>합</td><td>계</td><td></td><td>44,828.1</td><td>50,470,000</td></tr></table>	기관명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	잡외	3,278.6	5,048,000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학	14,071.8	21,680,000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	전외	14,477.7	22,300,000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	학	13,000	1,442,000	합	계		44,828.1	50,470,000											
				기관명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	잡외	3,278.6	5,048,000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학	14,071.8	21,680,000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	전외	14,477.7	22,300,000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	학	13,000	1,442,000																																									
합	계		44,828.1	50,470,000																																									
- 건물 (단위 : m²,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소재지</th><th>면적</th><th>기준가격</th></tr><tr><td>가칭 '천안성성2유치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td><td>3,267</td><td>6,995,000</td></tr><tr><td>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td><td>14,988</td><td>26,960,000</td></tr><tr><td>가칭 '천안성성2중학교'</td><td>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td><td>13,333</td><td>24,000,000</td></tr><tr><td>가칭 '성연유치원'</td><td>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 일원</td><td>3,861</td><td>8,266,000</td></tr><tr><td>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td><td>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td><td>13,918</td><td>25,052,000</td></tr><tr><td>충청남도 교육청직장어린이집</td><td>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td><td>800</td><td>3,068,564</td></tr><tr><td>가칭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td><td>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8-9</td><td>1,980</td><td>3,909,527</td></tr><tr><td>천안불무초등학교</td><td>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td><td>2,100</td><td>3,927,911</td></tr><tr><td>가칭 '청곡상상이룸교육센터'</td><td>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638번지 외 2필지</td><td>1,231</td><td>2,671,800</td></tr><tr><td>합</td><td>계</td><td></td><td>55,478</td><td>104,850,802</td></tr></table>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	3,267	6,995,000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14,988	26,960,000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	13,333	24,000,000	가칭 '성연유치원'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 일원	3,861	8,266,000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	13,918	25,052,000	충청남도 교육청직장어린이집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800	3,068,564	가칭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8-9	1,980	3,909,527	천안불무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2,100	3,927,911	가칭 '청곡상상이룸교육센터'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638번지 외 2필지	1,231	2,671,800	합	계		55,478	104,850,802
기관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가칭 '천안성성2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8번지 일원	3,267	6,995,000																																										
가칭 '천안성성2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828번지	14,988	26,960,000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6-11번지 외 11필지	13,333	24,000,000																																										
가칭 '성연유치원'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 일원	3,861	8,266,000																																										
가칭 '대동초중통합학교'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8번지 일원	13,918	25,052,000																																										
충청남도 교육청직장어린이집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800	3,068,564																																										
가칭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8-9	1,980	3,909,527																																										
천안불무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2,100	3,927,911																																										
가칭 '청곡상상이룸교육센터'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638번지 외 2필지	1,231	2,671,800																																										
합	계		55,478	104,850,802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처분 - 토지 (단위 : ㎡,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소재지</th><th>지목</th><th>면적</th><th>기준가격</th></tr><tr><td>구.광신초등학교</td><td>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9-17</td><td>학</td><td>312</td><td>23,556</td></tr><tr><td>구.광신초등학교</td><td>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td><td>학</td><td>10,857</td><td>837,074</td></tr><tr><td>구.광신초등학교</td><td>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1</td><td>학</td><td>521</td><td>7,085</td></tr><tr><td>구.광남초등학교</td><td>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td><td>학</td><td>11,015</td><td>1,143,357</td></tr><tr><td rowspan="3">구.광성초등학교</td><td>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579-1</td><td>학</td><td>1,074</td><td>46,933</td></tr><tr><td>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td><td>학</td><td>9,325</td><td>407,502</td></tr><tr><td>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1</td><td>학</td><td>4,052</td><td>177,072</td></tr><tr><td colspan="3">합계</td><td>37,156</td><td>2,642,579</td></tr></table> - 건물 (단위 : ㎡,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재산의 표시</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가격</th></tr><tr><td rowspan="6">구.덕산중학교</td><td rowspan="6">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td><td>교사1동</td><td>1,934.07</td><td>1,045,323</td></tr><tr><td>교사2동</td><td>1,209.80</td><td>132,762</td></tr><tr><td>급식실</td><td>374</td><td>558,322</td></tr><tr><td>창고1동</td><td>33.12</td><td>3,196</td></tr><tr><td>창고2동</td><td>60</td><td>8,715</td></tr><tr><td>조례대</td><td>32</td><td>55,558</td></tr><tr><td rowspan="5">구.광신초등학교</td><td rowspan="5">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td><td>교사</td><td>1249</td><td rowspan="5">487,210</td></tr><tr><td>교사</td><td>548</td></tr><tr><td>숙직실</td><td>31</td></tr><tr><td>창고</td><td>51</td></tr><tr><td>조리실</td><td>78</td></tr><tr><td rowspan="3">구.광남초등학교</td><td rowspan="3">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td><td>가스창고</td><td>3</td><td rowspan="3">265,751</td></tr><tr><td>교사</td><td>1,839</td></tr><tr><td>창고</td><td>28</td></tr><tr><td rowspan="7">구.광성초등학교</td><td rowspan="7">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td><td>교사</td><td>833</td><td rowspan="7">94,150</td></tr><tr><td>교사</td><td>428</td></tr><tr><td>숙직실</td><td>129</td></tr><tr><td>화장실</td><td>18</td></tr><tr><td>가스창고</td><td>4</td></tr><tr><td>급수용수시설</td><td>17</td></tr><tr><td>방과후교실 및 보건실</td><td>101</td></tr><tr><td colspan="3">합계</td><td>8,999.99</td><td>2,650,987</td></tr></table> - 공작물과 입목죽 (단위: 식/㎡, 천 원) <table><tr><th>기관명</th><th>재산의 표시</th><th>명칭</th><th>수량</th><th>기준가격</th></tr><tr><td rowspan="2">구.덕산중학교</td><td rowspan="2">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td><td>공작물</td><td>622.3</td><td>132,525</td></tr><tr><td>입목죽</td><td>30</td><td>9,563</td></tr><tr><td rowspan="2">구.광남초등학교</td><td rowspan="2">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td><td>공작물</td><td>403</td><td>66,954</td></tr><tr><td>입목죽</td><td>530</td><td>11,704</td></tr><tr><td rowspan="2">구.광성초등학교</td><td rowspan="2">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td><td>공작물</td><td>8</td><td>29,088</td></tr><tr><td>입목죽</td><td>24</td><td>7,200</td></tr><tr><td colspan="3">합계</td><td>1,617.3</td><td>257,034</td></tr></table>	기관명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9-17	학	312	23,556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학	10,857	837,074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1	학	521	7,085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학	11,015	1,143,357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579-1	학	1,074	46,933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학	9,325	407,502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1	학	4,052	177,072	합계			37,156	2,642,579	기관명	재산의 표시	명칭	면적	기준가격	구.덕산중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	교사1동	1,934.07	1,045,323	교사2동	1,209.80	132,762	급식실	374	558,322	창고1동	33.12	3,196	창고2동	60	8,715	조례대	32	55,558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교사	1249	487,210	교사	548	숙직실	31	창고	51	조리실	78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가스창고	3	265,751	교사	1,839	창고	28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교사	833	94,150	교사	428	숙직실	129	화장실	18	가스창고	4	급수용수시설	17	방과후교실 및 보건실	101	합계			8,999.99	2,650,987	기관명	재산의 표시	명칭	수량	기준가격	구.덕산중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	공작물	622.3	132,525	입목죽	30	9,563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공작물	403	66,954	입목죽	530	11,704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공작물	8	29,088	입목죽	24	7,200	합계			1,617.3	257,034
				기관명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9-17	학	312	23,556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학	10,857	837,074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1	학	521	7,085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학	11,015	1,143,357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579-1	학	1,074	46,933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학	9,325	407,502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1	학	4,052	177,072																																																																																																																																														
				합계			37,156	2,642,579																																																																																																																																														
기관명	재산의 표시	명칭	면적	기준가격																																																																																																																																																		
구.덕산중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	교사1동	1,934.07	1,045,323																																																																																																																																																		
		교사2동	1,209.80	132,762																																																																																																																																																		
		급식실	374	558,322																																																																																																																																																		
		창고1동	33.12	3,196																																																																																																																																																		
		창고2동	60	8,715																																																																																																																																																		
		조례대	32	55,558																																																																																																																																																		
구.광신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교사	1249	487,210																																																																																																																																																		
		교사	548																																																																																																																																																			
		숙직실	31																																																																																																																																																			
		창고	51																																																																																																																																																			
		조리실	78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가스창고	3	265,751																																																																																																																																																		
		교사	1,839																																																																																																																																																			
		창고	28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교사	833	94,150																																																																																																																																																		
		교사	428																																																																																																																																																			
		숙직실	129																																																																																																																																																			
		화장실	18																																																																																																																																																			
		가스창고	4																																																																																																																																																			
		급수용수시설	17																																																																																																																																																			
		방과후교실 및 보건실	101																																																																																																																																																			
합계			8,999.99	2,650,987																																																																																																																																																		
기관명	재산의 표시	명칭	수량	기준가격																																																																																																																																																		
구.덕산중학교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외 4필지	공작물	622.3	132,525																																																																																																																																																		
		입목죽	30	9,563																																																																																																																																																		
구.광남초등학교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 353-2	공작물	403	66,954																																																																																																																																																		
		입목죽	530	11,704																																																																																																																																																		
구.광성초등학교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공작물	8	29,088																																																																																																																																																		
		입목죽	24	7,200																																																																																																																																																		
합계			1,617.3	257,034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동의안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 대해 인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보장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 위탁기관 :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20년 1월 ~ 2021년 2월 - 2020년 사업비 : 250,000천 원 ▷ 도교육청 210,000천 원, 금산군 30,000천 원, 부여군 10,000천 원 - 위탁사무 ▷ 고등학교 정규교과 지원, 진로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의안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향상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학기관에 위탁 - 위탁기관 :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20년 3월 ~ 2022년 12월 - 사 업 비 : 도교육청 540백만 원 ▷ 2020년 : 140백만 원, 2021년 : 200백만 원, 2022년 : 200백만 원 - 위탁사무 ▷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기관 지원
동의안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천안, 아산 지역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급증하고 위탁 만족도가 높아 2020년도에 해당 사업 지속 운영 - 위탁기관 :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 사업비 : 도교육청 200백만 원(2개 기관/각 100백만 원) - 위탁사무 ▷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공교육 진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의안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관 :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 협약체결 - 위탁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 사업비 : 도교육청 9,800만 원(2개 기관) ▷ 카이스트 충남 e-영재교육원 5,800만 원 ▷ 충남다문화영재교육원 4,000만 원 - 위탁사무 ▷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다문화영재교육원 운영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지사	수정가결	• 총 규모 : 6조 7,842억 원 (기정예산 대비 △1.70%, 1,171억 원 ↓) - 일반회계 : 6조 1,861억 원 (기정예산 대비 △2.24%, 1,419억 원 ↓) - 특별회계 : 5,981억 원(기정예산대비4.32%, 248억 원 ↑) (단위 : 억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추 경 예산안</th><th rowspan="2">구 성비</th><th rowspan="2">기 정 예산액</th><th rowspan="2">구 성비</th><th colspan="2">증 감</th></tr><tr><th>금액</th><th>%</th></tr><tr><td>총 계</td><td>67,842</td><td>100</td><td>69,013</td><td>100</td><td>△1,171</td><td>△1.70</td></tr><tr><td>일 반 회 계</td><td>61,861</td><td>91.18</td><td>63,280</td><td>91.68</td><td>△1,419</td><td>△2.24</td></tr><tr><td>특 별 회 계</td><td>5,981</td><td>8.82</td><td>5,733</td><td>8.32</td><td>248</td><td>4.32</td></tr><tr><td>도청소재도시건설</td><td>70</td><td>0.11</td><td>80</td><td>0.12</td><td>△10</td><td>△12.19</td></tr><tr><td>균형발전</td><td>475</td><td>0.70</td><td>475</td><td>0.69</td><td>-</td><td>-</td></tr><tr><td>인면도관광지개발</td><td>169</td><td>0.25</td><td>172</td><td>0.25</td><td>△3</td><td>△1.73</td></tr><tr><td>의료급여기금</td><td>3,610</td><td>5.32</td><td>3,354</td><td>4.86</td><td>256</td><td>7.63</td></tr><tr><td>광역교통시설</td><td>219</td><td>0.32</td><td>219</td><td>0.32</td><td>-</td><td>-</td></tr><tr><td>학교용지부담금</td><td>251</td><td>0.37</td><td>249</td><td>0.36</td><td>2</td><td>0.75</td></tr><tr><td>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td><td>229</td><td>0.34</td><td>227</td><td>0.33</td><td>2</td><td>0.69</td></tr><tr><td>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td><td>958</td><td>1.41</td><td>957</td><td>1.39</td><td>1</td><td>0.15</td></tr></table>	구분	추 경 예산안	구 성비	기 정 예산액	구 성비	증 감		금액	%	총 계	67,842	100	69,013	100	△1,171	△1.70	일 반 회 계	61,861	91.18	63,280	91.68	△1,419	△2.24	특 별 회 계	5,981	8.82	5,733	8.32	248	4.32	도청소재도시건설	70	0.11	80	0.12	△10	△12.19	균형발전	475	0.70	475	0.69	-	-	인면도관광지개발	169	0.25	172	0.25	△3	△1.73	의료급여기금	3,610	5.32	3,354	4.86	256	7.63	광역교통시설	219	0.32	219	0.32	-	-	학교용지부담금	251	0.37	249	0.36	2	0.75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229	0.34	227	0.33	2	0.69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58	1.41	957	1.39	1	0.15																					
구분	추 경 예산안	구 성비	기 정 예산액	구 성비						증 감																																																																																																					
					금액	%																																																																																																									
총 계	67,842	100	69,013	100	△1,171	△1.70																																																																																																									
일 반 회 계	61,861	91.18	63,280	91.68	△1,419	△2.24																																																																																																									
특 별 회 계	5,981	8.82	5,733	8.32	248	4.32																																																																																																									
도청소재도시건설	70	0.11	80	0.12	△10	△12.19																																																																																																									
균형발전	475	0.70	475	0.69	-	-																																																																																																									
인면도관광지개발	169	0.25	172	0.25	△3	△1.73																																																																																																									
의료급여기금	3,610	5.32	3,354	4.86	256	7.63																																																																																																									
광역교통시설	219	0.32	219	0.32	-	-																																																																																																									
학교용지부담금	251	0.37	249	0.36	2	0.75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229	0.34	227	0.33	2	0.69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958	1.41	957	1.39	1	0.15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총 규모 : 1조 715억 원 (기정예산 대비 3.88%, 400억 원 ↑) (단위 : 억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추 경 예산안</th><th rowspan="2">구 성비</th><th rowspan="2">기 정 예산액</th><th rowspan="2">구 성비</th><th colspan="2">증 감</th></tr><tr><th>금액</th><th>%</th></tr><tr><td>합 계</td><td>10,715</td><td>100</td><td>10,315</td><td>100</td><td>400</td><td>3.88</td></tr><tr><td>기 금 (12개)</td><td>10,715</td><td>100</td><td>10,315</td><td>100</td><td>400</td><td>3.88</td></tr><tr><td>통합관리기금</td><td>1,062</td><td>9.91</td><td>662</td><td>6.42</td><td>400</td><td>60.40</td></tr><tr><td>지역개발기금</td><td>5,923</td><td>55.28</td><td>5,923</td><td>57.42</td><td>-</td><td>-</td></tr><tr><td>재정안정화기금</td><td>461</td><td>4.30</td><td>461</td><td>4.47</td><td>-</td><td>-</td></tr><tr><td>재해구호기금</td><td>352</td><td>3.28</td><td>352</td><td>3.41</td><td>-</td><td>-</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610</td><td>5.69</td><td>610</td><td>5.91</td><td>-</td><td>-</td></tr><tr><td>중소기업육성기금</td><td>1,792</td><td>16.72</td><td>1,792</td><td>17.37</td><td>-</td><td>-</td></tr><tr><td>남북교류협력기금</td><td>40</td><td>0.37</td><td>40</td><td>0.39</td><td>-</td><td>-</td></tr><tr><td>농어촌진흥기금</td><td>257</td><td>2.40</td><td>257</td><td>2.49</td><td>-</td><td>-</td></tr><tr><td>사회복지기금</td><td>70</td><td>0.65</td><td>70</td><td>0.68</td><td>-</td><td>-</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81</td><td>0.77</td><td>81</td><td>0.79</td><td>0.4</td><td>0.51</td></tr><tr><td>양성평등기금</td><td>38</td><td>0.36</td><td>38</td><td>0.37</td><td>-</td><td>-</td></tr><tr><td>청소년육성기금</td><td>29</td><td>0.27</td><td>29</td><td>0.28</td><td>-</td><td>-</td></tr></table>	구분	추 경 예산안	구 성비	기 정 예산액	구 성비	증 감		금액	%	합 계	10,715	100	10,315	100	400	3.88	기 금 (12개)	10,715	100	10,315	100	400	3.88	통합관리기금	1,062	9.91	662	6.42	400	60.40	지역개발기금	5,923	55.28	5,923	57.42	-	-	재정안정화기금	461	4.30	461	4.47	-	-	재해구호기금	352	3.28	352	3.41	-	-	재난관리기금	610	5.69	610	5.91	-	-	중소기업육성기금	1,792	16.72	1,792	17.37	-	-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37	40	0.39	-	-	농어촌진흥기금	257	2.40	257	2.49	-	-	사회복지기금	70	0.65	70	0.68	-	-	식품진흥기금	81	0.77	81	0.79	0.4	0.51	양성평등기금	38	0.36	38	0.37	-	-	청소년육성기금	29	0.27	29	0.28	-	-
구분	추 경 예산안	구 성비	기 정 예산액	구 성비						증 감																																																																																																					
					금액	%																																																																																																									
합 계	10,715	100	10,315	100	400	3.88																																																																																																									
기 금 (12개)	10,715	100	10,315	100	400	3.88																																																																																																									
통합관리기금	1,062	9.91	662	6.42	400	60.40																																																																																																									
지역개발기금	5,923	55.28	5,923	57.42	-	-																																																																																																									
재정안정화기금	461	4.30	461	4.47	-	-																																																																																																									
재해구호기금	352	3.28	352	3.41	-	-																																																																																																									
재난관리기금	610	5.69	610	5.91	-	-																																																																																																									
중소기업육성기금	1,792	16.72	1,792	17.37	-	-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37	40	0.39	-	-																																																																																																									
농어촌진흥기금	257	2.40	257	2.49	-	-																																																																																																									
사회복지기금	70	0.65	70	0.68	-	-																																																																																																									
식품진흥기금	81	0.77	81	0.79	0.4	0.51																																																																																																									
양성평등기금	38	0.36	38	0.37	-	-																																																																																																									
청소년육성기금	29	0.27	29	0.28	-	-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충청남도지사	수정가결	• 총 규모 : 6조 8,194억 원 (기정예산 대비 8.77%, 5,500억 원 ↑) - 일반회계 : 6조 2,760억 원 ('19년 본예산 대비 9.34%, 5,360억 원 ↑) - 특별회계 : 5,434억 원 ('19년 본예산 대비 2.64%, 140억 원 ↑) (단위 : 억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2020년 예산안</th><th rowspan="2">구성비</th><th rowspan="2">2019년 당초</th><th rowspan="2">구성비</th><th colspan="2">증 감</th></tr><tr><th>금액</th><th>%</th></tr><tr><td>총 계</td><td>68,194</td><td>100</td><td>62,694</td><td>100</td><td>5,500</td><td>8.77</td></tr><tr><td>일 반 회 계</td><td>62,760</td><td>92.03</td><td>57,400</td><td>91.56</td><td>5,360</td><td>9.34</td></tr><tr><td>특 별 회 계</td><td>5,434</td><td>7.97</td><td>5,294</td><td>8.44</td><td>140</td><td>2.64</td></tr><tr><td>도청소재도시건설</td><td>39</td><td>0.05</td><td>88</td><td>0.14</td><td>△49</td><td>△55.76</td></tr><tr><td>균형발전</td><td>410</td><td>0.60</td><td>443</td><td>0.71</td><td>△33</td><td>△7.61</td></tr><tr><td>안면도관광지개발</td><td>58</td><td>0.08</td><td>59</td><td>0.09</td><td>△1</td><td>△1.19</td></tr><tr><td>의료급여기금</td><td>3,584</td><td>5.26</td><td>3,304</td><td>5.27</td><td>280</td><td>8.48</td></tr><tr><td>광역교통시설</td><td>72</td><td>0.11</td><td>157</td><td>0.25</td><td>△85</td><td>△54.31</td></tr><tr><td>학교용지부담금</td><td>240</td><td>0.35</td><td>203</td><td>0.32</td><td>37</td><td>18.48</td></tr><tr><td>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td><td>175</td><td>0.26</td><td>203</td><td>0.32</td><td>△28</td><td>△13.74</td></tr><tr><td>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td><td>856</td><td>1.26</td><td>837</td><td>1.34</td><td>19</td><td>2.25</td></tr></table>	구분	2020년 예산안	구성비	2019년 당초	구성비	증 감		금액	%	총 계	68,194	100	62,694	100	5,500	8.77	일 반 회 계	62,760	92.03	57,400	91.56	5,360	9.34	특 별 회 계	5,434	7.97	5,294	8.44	140	2.64	도청소재도시건설	39	0.05	88	0.14	△49	△55.76	균형발전	410	0.60	443	0.71	△33	△7.61	안면도관광지개발	58	0.08	59	0.09	△1	△1.19	의료급여기금	3,584	5.26	3,304	5.27	280	8.48	광역교통시설	72	0.11	157	0.25	△85	△54.31	학교용지부담금	240	0.35	203	0.32	37	18.48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175	0.26	203	0.32	△28	△13.74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56	1.26	837	1.34	19	2.25																					
구분	2020년 예산안	구성비	2019년 당초	구성비						증 감																																																																																																					
					금액	%																																																																																																									
총 계	68,194	100	62,694	100	5,500	8.77																																																																																																									
일 반 회 계	62,760	92.03	57,400	91.56	5,360	9.34																																																																																																									
특 별 회 계	5,434	7.97	5,294	8.44	140	2.64																																																																																																									
도청소재도시건설	39	0.05	88	0.14	△49	△55.76																																																																																																									
균형발전	410	0.60	443	0.71	△33	△7.61																																																																																																									
안면도관광지개발	58	0.08	59	0.09	△1	△1.19																																																																																																									
의료급여기금	3,584	5.26	3,304	5.27	280	8.48																																																																																																									
광역교통시설	72	0.11	157	0.25	△85	△54.31																																																																																																									
학교용지부담금	240	0.35	203	0.32	37	18.48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175	0.26	203	0.32	△28	△13.74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56	1.26	837	1.34	19	2.25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남도지사	원안가결	• 총 규모 : 9,641억 원 (기정예산 대비 △3.13%, 311억 원 ↓) (단위 : 억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2020년</th><th rowspan="2">구성비</th><th rowspan="2">2019년</th><th rowspan="2">구성비</th><th colspan="2">증 감</th></tr><tr><th>금액</th><th>%</th></tr><tr><td>합 계</td><td>9,641</td><td>100</td><td>9,952</td><td>100</td><td>△311</td><td>△3.13</td></tr><tr><td>기 금 (12개)</td><td>9,641</td><td>100</td><td>9,952</td><td>100</td><td>△311</td><td>△3.13</td></tr><tr><td>통합관리기금</td><td>936</td><td>9.71</td><td>664</td><td>6.67</td><td>272</td><td>40.96</td></tr><tr><td>지역개발기금</td><td>5,424</td><td>56.25</td><td>5,781</td><td>58.09</td><td>△357</td><td>△6.18</td></tr><tr><td>재정안정화기금</td><td>203</td><td>2.11</td><td>241</td><td>2.43</td><td>△38</td><td>△15.77</td></tr><tr><td>재해구호기금</td><td>409</td><td>4.25</td><td>352</td><td>3.54</td><td>57</td><td>16.19</td></tr><tr><td>재난관리기금</td><td>510</td><td>5.29</td><td>610</td><td>6.13</td><td>△100</td><td>△16.39</td></tr><tr><td>중소기업육성기금</td><td>1,655</td><td>17.16</td><td>1,794</td><td>18.03</td><td>△139</td><td>△7.75</td></tr><tr><td>남북교류협력기금</td><td>40</td><td>0.41</td><td>40</td><td>0.40</td><td>-</td><td>-</td></tr><tr><td>농어촌진흥기금</td><td>256</td><td>2.66</td><td>257</td><td>2.58</td><td>△1</td><td>△0.39</td></tr><tr><td>사회복지기금</td><td>68</td><td>0.71</td><td>70</td><td>0.70</td><td>△2</td><td>△2.86</td></tr><tr><td>식품진흥기금</td><td>75</td><td>0.78</td><td>76</td><td>0.76</td><td>△1</td><td>△1.32</td></tr><tr><td>양성평등기금</td><td>37</td><td>0.38</td><td>38</td><td>0.38</td><td>△1</td><td>△2.63</td></tr><tr><td>청소년육성기금</td><td>28</td><td>0.29</td><td>29</td><td>0.29</td><td>△1</td><td>△3.45</td></tr></table>	구분	2020년	구성비	2019년	구성비	증 감		금액	%	합 계	9,641	100	9,952	100	△311	△3.13	기 금 (12개)	9,641	100	9,952	100	△311	△3.13	통합관리기금	936	9.71	664	6.67	272	40.96	지역개발기금	5,424	56.25	5,781	58.09	△357	△6.18	재정안정화기금	203	2.11	241	2.43	△38	△15.77	재해구호기금	409	4.25	352	3.54	57	16.19	재난관리기금	510	5.29	610	6.13	△100	△16.39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	17.16	1,794	18.03	△139	△7.75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41	40	0.40	-	-	농어촌진흥기금	256	2.66	257	2.58	△1	△0.39	사회복지기금	68	0.71	70	0.70	△2	△2.86	식품진흥기금	75	0.78	76	0.76	△1	△1.32	양성평등기금	37	0.38	38	0.38	△1	△2.63	청소년육성기금	28	0.29	29	0.29	△1	△3.45
구분	2020년	구성비	2019년	구성비						증 감																																																																																																					
					금액	%																																																																																																									
합 계	9,641	100	9,952	100	△311	△3.13																																																																																																									
기 금 (12개)	9,641	100	9,952	100	△311	△3.13																																																																																																									
통합관리기금	936	9.71	664	6.67	272	40.96																																																																																																									
지역개발기금	5,424	56.25	5,781	58.09	△357	△6.18																																																																																																									
재정안정화기금	203	2.11	241	2.43	△38	△15.77																																																																																																									
재해구호기금	409	4.25	352	3.54	57	16.19																																																																																																									
재난관리기금	510	5.29	610	6.13	△100	△16.39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	17.16	1,794	18.03	△139	△7.75																																																																																																									
남북교류협력기금	40	0.41	40	0.40	-	-																																																																																																									
농어촌진흥기금	256	2.66	257	2.58	△1	△0.39																																																																																																									
사회복지기금	68	0.71	70	0.70	△2	△2.86																																																																																																									
식품진흥기금	75	0.78	76	0.76	△1	△1.32																																																																																																									
양성평등기금	37	0.38	38	0.38	△1	△2.63																																																																																																									
청소년육성기금	28	0.29	29	0.29	△1	△3.45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내용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총 규모 : 4조 756억 원(기정 대비 △0.04%, 15억 원 ↓) (단위 : 억 원,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회 추경예산액(A)</th><th colspan="2">기정예산액(B)</th><th colspan="2">증 감(A-B)</th></tr><tr><th>금액</th><th>구성비</th><th>금액</th><th>구성비</th><th>금액</th><th>증감률</th></tr><tr><td>합 계</td><td>40,756</td><td></td><td>40,771</td><td></td><td>△15</td><td>△0.04</td></tr><tr><td>유아 및 초·중등교육</td><td>35,259</td><td>86.4</td><td>35,161</td><td>86.2</td><td>98</td><td>0.3</td></tr><tr><td>1. 인적자원 운용</td><td>19,514</td><td>47.9</td><td>19,369</td><td>47.5</td><td>145</td><td>0.7</td></tr><tr><td>2. 교수-학습활동 지원</td><td>2,539</td><td>6.2</td><td>2,538</td><td>6.2</td><td>1</td><td>0.0</td></tr><tr><td>3. 교육복지 지원</td><td>3,035</td><td>7.4</td><td>3,074</td><td>7.5</td><td>△39</td><td>△1.3</td></tr><tr><td>4. 보건/급식/ 체육활동</td><td>320</td><td>0.8</td><td>314</td><td>0.8</td><td>6</td><td>1.9</td></tr><tr><td>5. 학교재정 지원관리</td><td>5,557</td><td>13.6</td><td>5,574</td><td>13.7</td><td>△17</td><td>△0.3</td></tr><tr><td>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td><td>4,294</td><td>10.5</td><td>4,292</td><td>10.5</td><td>2</td><td>0.0</td></tr><tr><td>평생·직업교육</td><td>88</td><td>0.2</td><td>87</td><td>0.2</td><td>1</td><td>1.1</td></tr><tr><td>7. 평생교육</td><td>88</td><td>0.2</td><td>87</td><td>0.2</td><td>1</td><td>1.1</td></tr><tr><td>교육일반</td><td>5,409</td><td>13.4</td><td>5,523</td><td>13.6</td><td>△114</td><td>△2.1</td></tr><tr><td>8. 교육행정일반</td><td>557</td><td>1.4</td><td>545</td><td>1.3</td><td>12</td><td>2.2</td></tr><tr><td>9. 기관운영관리</td><td>659</td><td>1.7</td><td>620</td><td>1.5</td><td>39</td><td>6.3</td></tr><tr><td>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td><td>4,066</td><td>10.0</td><td>4,126</td><td>10.2</td><td>△60</td><td>△1.5</td></tr><tr><td>11. 예비비 및 기타</td><td>127</td><td>0.3</td><td>232</td><td>0.6</td><td>△105</td><td>△45.3</td></tr></table>	구분	2회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0,756		40,771		△15	△0.0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259	86.4	35,161	86.2	98	0.3	1. 인적자원 운용	19,514	47.9	19,369	47.5	145	0.7	2. 교수-학습활동 지원	2,539	6.2	2,538	6.2	1	0.0	3. 교육복지 지원	3,035	7.4	3,074	7.5	△39	△1.3	4. 보건/급식/ 체육활동	320	0.8	314	0.8	6	1.9	5. 학교재정 지원관리	5,557	13.6	5,574	13.7	△17	△0.3	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294	10.5	4,292	10.5	2	0.0	평생·직업교육	88	0.2	87	0.2	1	1.1	7. 평생교육	88	0.2	87	0.2	1	1.1	교육일반	5,409	13.4	5,523	13.6	△114	△2.1	8. 교육행정일반	557	1.4	545	1.3	12	2.2	9. 기관운영관리	659	1.7	620	1.5	39	6.3	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066	10.0	4,126	10.2	△60	△1.5	11. 예비비 및 기타	127	0.3	232	0.6	△105	△45.3
				구분		2회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0,756		40,771		△15	△0.0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259	86.4	35,161	86.2	98	0.3																																																																																																																				
1. 인적자원 운용	19,514	47.9	19,369	47.5	145	0.7																																																																																																																				
2. 교수-학습활동 지원	2,539	6.2	2,538	6.2	1	0.0																																																																																																																				
3. 교육복지 지원	3,035	7.4	3,074	7.5	△39	△1.3																																																																																																																				
4. 보건/급식/ 체육활동	320	0.8	314	0.8	6	1.9																																																																																																																				
5. 학교재정 지원관리	5,557	13.6	5,574	13.7	△17	△0.3																																																																																																																				
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4,294	10.5	4,292	10.5	2	0.0																																																																																																																				
평생·직업교육	88	0.2	87	0.2	1	1.1																																																																																																																				
7. 평생교육	88	0.2	87	0.2	1	1.1																																																																																																																				
교육일반	5,409	13.4	5,523	13.6	△114	△2.1																																																																																																																				
8. 교육행정일반	557	1.4	545	1.3	12	2.2																																																																																																																				
9. 기관운영관리	659	1.7	620	1.5	39	6.3																																																																																																																				
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066	10.0	4,126	10.2	△60	△1.5																																																																																																																				
11. 예비비 및 기타	127	0.3	232	0.6	△105	△45.3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충청남도교육감	수정가결	• 총 규모 : 3조 6,142억 원(전년도 대비 4.7%, 1,626억 원 ↑) (단위 : 억 원,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년도 예산액(A)</th><th colspan="2">'19년도 예산액(B)</th><th colspan="2">증 감(A-B)</th></tr><tr><th>금액</th><th>구성비</th><th>금액</th><th>구성비</th><th>금액</th><th>증감률</th></tr><tr><td>합 계</td><td>36,142</td><td></td><td>34,516</td><td></td><td>1,626</td><td>4.7%</td></tr><tr><td>유아 및 초·중등교육</td><td>34,744</td><td>96.1%</td><td>32,703</td><td>94.7%</td><td>2,041</td><td>6.2%</td></tr><tr><td>1. 인적자원 운용</td><td>19,845</td><td>54.9%</td><td>19,339</td><td>56.0%</td><td>506</td><td>2.6%</td></tr><tr><td>2. 교수-학습활동 지원</td><td>2,308</td><td>6.4%</td><td>2,252</td><td>6.5%</td><td>56</td><td>2.5%</td></tr><tr><td>3. 교육복지 지원</td><td>3,220</td><td>8.9%</td><td>3,037</td><td>8.8%</td><td>183</td><td>6.0%</td></tr><tr><td>4. 보건/급식/ 체육활동</td><td>258</td><td>0.7%</td><td>243</td><td>0.7%</td><td>15</td><td>6.2%</td></tr><tr><td>5. 학교재정 지원관리</td><td>6,831</td><td>18.9%</td><td>5,469</td><td>15.8%</td><td>1,362</td><td>24.9%</td></tr><tr><td>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td><td>2,281</td><td>6.3%</td><td>2,363</td><td>6.9%</td><td>△82</td><td>△3.4%</td></tr><tr><td>평생·직업교육</td><td>70</td><td>0.2%</td><td>83</td><td>0.2%</td><td>△13</td><td>△15.4%</td></tr><tr><td>7. 평생교육</td><td>70</td><td>0.2%</td><td>83</td><td>0.2%</td><td>△13</td><td>△15.4%</td></tr><tr><td>교육일반</td><td>1,328</td><td>3.7%</td><td>1,730</td><td>5.0%</td><td>△402</td><td>△23.2%</td></tr><tr><td>8. 교육행정일반</td><td>471</td><td>1.3%</td><td>456</td><td>1.3%</td><td>15</td><td>3.3%</td></tr><tr><td>9. 기관운영관리</td><td>506</td><td>1.4%</td><td>336</td><td>1.0%</td><td>170</td><td>50.6%</td></tr><tr><td>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td><td>259</td><td>0.7%</td><td>759</td><td>2.2%</td><td>△500</td><td>△65.9%</td></tr><tr><td>11. 예비비 및 기타</td><td>91</td><td>0.3%</td><td>179</td><td>0.5%</td><td>△88</td><td>△49.2%</td></tr></table>	구분	'20년도 예산액(A)		'19년도 예산액(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6,142		34,516		1,626	4.7%	유아 및 초·중등교육	34,744	96.1%	32,703	94.7%	2,041	6.2%	1. 인적자원 운용	19,845	54.9%	19,339	56.0%	506	2.6%	2. 교수-학습활동 지원	2,308	6.4%	2,252	6.5%	56	2.5%	3. 교육복지 지원	3,220	8.9%	3,037	8.8%	183	6.0%	4. 보건/급식/ 체육활동	258	0.7%	243	0.7%	15	6.2%	5. 학교재정 지원관리	6,831	18.9%	5,469	15.8%	1,362	24.9%	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281	6.3%	2,363	6.9%	△82	△3.4%	평생·직업교육	70	0.2%	83	0.2%	△13	△15.4%	7. 평생교육	70	0.2%	83	0.2%	△13	△15.4%	교육일반	1,328	3.7%	1,730	5.0%	△402	△23.2%	8. 교육행정일반	471	1.3%	456	1.3%	15	3.3%	9. 기관운영관리	506	1.4%	336	1.0%	170	50.6%	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59	0.7%	759	2.2%	△500	△65.9%	11. 예비비 및 기타	91	0.3%	179	0.5%	△88	△49.2%
구분	'20년도 예산액(A)		'19년도 예산액(B)			증 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6,142		34,516		1,626	4.7%																																																																																																																				
유아 및 초·중등교육	34,744	96.1%	32,703	94.7%	2,041	6.2%																																																																																																																				
1. 인적자원 운용	19,845	54.9%	19,339	56.0%	506	2.6%																																																																																																																				
2. 교수-학습활동 지원	2,308	6.4%	2,252	6.5%	56	2.5%																																																																																																																				
3. 교육복지 지원	3,220	8.9%	3,037	8.8%	183	6.0%																																																																																																																				
4. 보건/급식/ 체육활동	258	0.7%	243	0.7%	15	6.2%																																																																																																																				
5. 학교재정 지원관리	6,831	18.9%	5,469	15.8%	1,362	24.9%																																																																																																																				
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281	6.3%	2,363	6.9%	△82	△3.4%																																																																																																																				
평생·직업교육	70	0.2%	83	0.2%	△13	△15.4%																																																																																																																				
7. 평생교육	70	0.2%	83	0.2%	△13	△15.4%																																																																																																																				
교육일반	1,328	3.7%	1,730	5.0%	△402	△23.2%																																																																																																																				
8. 교육행정일반	471	1.3%	456	1.3%	15	3.3%																																																																																																																				
9. 기관운영관리	506	1.4%	336	1.0%	170	50.6%																																																																																																																				
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59	0.7%	759	2.2%	△500	△65.9%																																																																																																																				
11. 예비비 및 기타	91	0.3%	179	0.5%	△88	△49.2%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 요 내 용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충청남도교육감	원안가결	• 기금 운용계획 대상교 : 총 21교 - 신규 대상교(1교) : (청양)정산중 • 기금 운용액 : 금 8,341,613천 원 • 자금운용 계획 - 수입계획 (금액단위 : 천 원) <table><tr><th>수입항목</th><th>2020년도 수입액(a)</th><th>2019년도 수입액(b)</th><th>증감 (c=a-b)</th></tr><tr><td>합 계</td><td>79,593,355</td><td>69,816,715</td><td>9,776,640</td></tr><tr><td>전입금</td><td>18,600,000</td><td>17,535,227</td><td>1,064,773</td></tr><tr><td>예치금회수</td><td>60,093,355</td><td>51,489,659</td><td>8,603,696</td></tr><tr><td>이자수입</td><td>900,000</td><td>791,829</td><td>108,171</td></tr></table> - 지출계획 (금액단위 : 천 원) <table><tr><th>지출항목</th><th>2020년도 지출액(d)</th><th>2019년도 지출액(e)</th><th>증감 (f=d-e)</th></tr><tr><td>합계</td><td>79,593,355</td><td>69,816,715</td><td>9,776,640</td></tr><tr><td>통폐합학교지원</td><td>8,341,613</td><td>9,723,360</td><td>△1,381,747</td></tr><tr><td>예치금</td><td>71,251,742</td><td>60,093,355</td><td>11,158,387</td></tr></table>	수입항목	2020년도 수입액(a)	2019년도 수입액(b)	증감 (c=a-b)	합 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전입금	18,600,000	17,535,227	1,064,773	예치금회수	60,093,355	51,489,659	8,603,696	이자수입	900,000	791,829	108,171	지출항목	2020년도 지출액(d)	2019년도 지출액(e)	증감 (f=d-e)	합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통폐합학교지원	8,341,613	9,723,360	△1,381,747	예치금	71,251,742	60,093,355	11,158,387
수입항목	2020년도 수입액(a)	2019년도 수입액(b)	증감 (c=a-b)																																					
합 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전입금	18,600,000	17,535,227	1,064,773																																					
예치금회수	60,093,355	51,489,659	8,603,696																																					
이자수입	900,000	791,829	108,171																																					
지출항목	2020년도 지출액(d)	2019년도 지출액(e)	증감 (f=d-e)																																					
합계	79,593,355	69,816,715	9,776,640																																					
통폐합학교지원	8,341,613	9,723,360	△1,381,747																																					
예치금	71,251,742	60,093,355	11,158,387																																					
결의안	일본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 삭제 촉구 결의안	발의 : 김 연(대표) 김형도, 김한태, 황영란, 김옥수, 여운영, 김기영, 정병기, 최 훈, 오인철, 이공휘, 안장현, 홍재표, 이영우, 한영신, 조길연, 이선영, 정광섭, 조승만, 지정근, 전익현, 이계양, 한옥동, 김은나, 유병국, 장승재, 양금봉, 방한일, 김영권, 김기서, 김명숙, 김명선, 홍기후 의원	원안가결	• 일본정부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즉시 이행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메이지유산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하도록 결의 ※ 권고사항(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각 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안내하여야 한다																																				



정병기 의원 2019. 10. 16.

낮은 장애인 고용률 끌어올리자

❖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도내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10월 16일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에서 '충남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병기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이 좌장을,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지원장과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영미 회장과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전재하 회장, 제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봉금 회장, 충남도 이재은 장애인자립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주형 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보면 충남은 7개 지표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만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며 "대부분 보통 이하의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4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에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의무고용 이행 제도와 직업재활시설 유형방안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조례 개정, 도와 고용공단, 교육청 3자간 연계·협력 방식의 입체적 직업재활 지원체계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한봉금 회장은 제주도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사례, 이재은 팀장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일자리 지원현황을 소개했고, 이영미·전재하 회장과 김연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일자리 기회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모든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

2019. 10. 16.

당진항 미래 청사진 그린다

❖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당진항을 동북아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상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16일 당진 함상공원 내 함상카페에서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계양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박창호 세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연 박사와 당진해양발전협의회 김현기 회장, 당진항만물류협회 이병성 회장, 충남도 이구영 해운항만과장, 당진시 한영우 항만수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진은 1500년 전부터 당나라와 무역선이 드나들던 나루터였다"며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대중국 무역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리나라 수도권을 통하는 관문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진항은 전국 최고의 물동량 증가를 자랑하며 국내 5대 항만으로 진입했고 천혜의 입지조건과 수십년간 구축한 철강클러스터 등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무역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가시화될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이 소망하는 당진항 발전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당진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충남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당진항 배후지에 한중 FTA 대응을 위한 물류산업 플랫폼과 당진 해양산업 클러스터, 국제 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 및 해상직항로 · 철도 등 SOC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당진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서산시 등이 공동 출연하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충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당진항만물류협회 이병성 회장도 "항만공사는 물론 항만 SOC사업과 지역 항만물류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박창호 교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빠른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최지연 박사는 "당진항은 캐나다 핼리팩스항과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유사한 만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항만공간과 해양신산업을 연계한 당진의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기 회장은 화주(貨主)전용산단과 당진공항 등 SOC사업의 중요성과 환황해권 물류 허브로서 발전 필요성을, 이구영 과장은 당진 해양항만 정책 방향을, 한영우 과장은 타 항만과의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조승만 의원

2019. 10. 17.

전문가·주민과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 푼다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0월 17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만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 의원이 좌장을, 충남대 안희권 교수(동물자원과학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과 충남도 오진기 축산과장, 홍성군 이병임 환경과장,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김영우 공동의장, 홍북읍주민자치위원회 김상홍 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해법을 찾기 위해 도 관련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조 의원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악취 저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희권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인악취 포집기와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연계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을 악취 저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병오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들며 축산법과 악취방지법 등 제도 개선을, 오진기 과장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점검반 활용을 통한 불편 최소화 의견을 내놓았다.

이병임 과장은 내포신도시 반경 1km 축산 농가 이전폐업 노력을, 김영우 공동의장은 광역악취개선사업 등 다양한 악취저감 방안을, 김상홍 위원장은 축사 이전의 원활한 진행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여운영 의원

2019. 10. 18.

학교밖 청소년 올바른 성장 도모

❖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았다.

충남도의회는 10월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운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이 발표자로, 꽃피는학교 김민수 대표이사과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 충남대 허창수 교육학과 교수, 금산간디학교 조혁민 졸업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민형 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권이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박현수 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차별금지 해소와 안전·기본인권 보장,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김민수 대표이사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학습·보호자 선택권 보장 의견을 제시했다.

이울러 허창수 교수는 대안교육 패러다임의 확대를, 조혁민 졸업생은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각각 요구했다.

여운영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제기된 의견을 모아 조례 제·개정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제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연 의원 2019. 10. 22.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모색

❖ 민주주의 소양 · 시민의식 향상 도모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민주주의 소양과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10월 22일 충남콘텐츠키업육성센터 이벤트홀에서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이충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고 도의회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과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숙 이사, 충남도교육청 김문광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천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한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충렬 이사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유신독재 체제와 87체제의 탄생 · 87체제 이후 진행된 30여년 간의 민주화 운동 · 2017년 촛불항쟁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충남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과 의의 · 성과를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시대정신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접목시킨 민주시민 교육운동 등의 사업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교감을 확장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김영숙 이사는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개요 및 사업계획안을 소개했고, 이공휘 위원장과 김문광 장학사는 각각 민주화 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과 촛불혁명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한구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연 의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충남 지역 민주주의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모든 도민의 민주주의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익현 의원

2019. 10. 30.

명품도로 건설로 관광객 발길 이끈다

❖ 지역특색 명품도로 건설 · 관광자원화 모색

충남도의회가 지역 특색을 살린 명품도로를 건설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충남도의회는 10월 30일 서천문화원에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초청해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익현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 의원이 진행을, 이명원 충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도로건설 전문가인 양계승 양지ENG 대표와 이남재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조남용 서천군 건설과장, 김현복 제일ENG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 홍성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자리에서 “전북 완주 무궁화 가로수길, 충북 영동 감나무 가로수길, 전남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등 전국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며 “도로는 물류와 사람이 이동하는 단순한 시설에서 벗어나 관광자원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시설물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도로를 건설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10~20년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 하자”고 밝혔다.

이명원 교수는 ‘보고 느끼고 머물고 싶은 명품도로’를 주제로 테마와 친환경 · 생태 도로, 선진국의 친환경 경관도로를 설명하고 비교를 통해 국내 도로경관의 문제점과 충남만의 특색 있는 명품도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들도 지자체별 특색있는 가로수길 축제 개최와 지역별 가로수길 특화지구 조성 등의 사례를 들며 명품도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양계승 양지ENG 대표는 “도로설계에서 지역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파악해야 한다”며 “소저감형 도로로 동식물 생태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민의 쾌적함은 물론 지역재생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가 관광자원화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재 과장은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천~공주 고속도로의 서부여~동서천 간 스마트 나들목(IC) 구축 필요성을, 국립생태원-동서천C 진입도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김현복 상무는 생태도시 서천의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요금소(TG) 주변 특색수종 식재 방안을 제안했다.

김아진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금강하구 등 서천군 생태관광 자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경관도로 조성을, 홍성민 사무국장은 명품도로 건설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안장현 의원

2019. 10. 31.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모색

❖ 협치기반형 위원회 혁신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10월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장현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명맥만 유지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점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정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이 좌장을, 목원대 장수찬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민주 교육팀장,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최재권 이사장, 충남도 구상 공동채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자리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가 무려 140개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본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신설할 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중복 위촉, 장기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위원회를 혁신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협치를 기반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찬 교수는 위원회 현황을 설명한 후 “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민간자원을 정책자원으로 활용할 때 시민의 자치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각각 민간협치형 위원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김용현 책임연구원), 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체계 구축 필요성(박기남 사무국장), 청년·자치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주체로 성장하기(이민주 교육팀장),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최재권 이사장), 충청남도 위원회 실태 및 활성화 방안(구상 공동채정책관)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영신 의원

2019. 11. 1.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논의

❖ 문화예술진흥 ·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전문가 · 유관기관과 발전방향 모색

충남도의회는 11월 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한영신 의원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재광 공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변영환 충남문화예술연대 대표와 류중열 극단 능소 · 천안 대학로 극장 대표, 오태근 충남예술총연합 회장, 권영택 충남도 문화정책과장, 안동순 천안시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먼저 자신부터 행복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선 콘텐츠가 알차고 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문화예술의 현 주소를 짚어 보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충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해 누구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광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소멸될 위험에 직면하면서 해당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도 함께 소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발적인 문화예술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시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예술가를 위한 창작시설 지원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강조한 후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른 예술인 마을 조성(변영환 대표) ▲사람은 있는가(류중열 대표) ▲충남문화정책 핵심 키워드 생성과 충남문화 예술 환경 조성 필요성(오태근 회장) ▲충남도 문화예술현황과 발전계획(권영택 과장) ▲천안시 문화예술 시책(안동순 과장)을 주제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도의회는 향후 실질적인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법규 정비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금봉 의원

2019. 11. 4.

미세먼지·송전선로 주변 주민 피해 방지책 마련 온힘

- ❖ 의정토론회 열어 전문가·유관기관과 해법 논의
- ❖ 정부·국회 관심 유발 위해 도민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 모색



충남도의회가 미세먼지와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질병 유발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는 11월 4일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에서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금봉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미세 먼지와 송전선로 피해 방지 대책 추진 관계자, 전문가들과 주민 피해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의원이 진행을,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황성렬 집행위원장과 미세먼지 고압선철탑 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 충남도 공상현 에너지전환팀장과 도종원 미세먼지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중간에는 송전탑이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집 바로 위를 지나가면서 마을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숨지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파의 주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만 챙기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주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종준 사무국장은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용되므로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은 전자기장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환경적 위해는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영역 곳곳에 침투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이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타지역으로 공급되는 일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환경은 물론 지가 하락과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자리에서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피해 방지 정책과 방안을 도와 군에서 꾸준히 모색하겠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도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공회 의원

2019. 11. 4.

스마트혁명 시대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 모색

❖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정책 진단 ·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스마트 정책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1월 4일 아산에 위치한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서 '스마트 혁명에 대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상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공회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의 스마트 정책과 관련해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충남연구원 최돈정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교통대 이경주 교수, SK텔레콤 지오비전 이동욱 사업담당부장, 충남연구원 오혜정 기획조정과장, 충남도 김영명 정책기획관과 고재성 공간정보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과 관련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수요 예측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실제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돈정 책임연구원은 "현재 충남의 공간 빅데이터 정책은 과제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주도적인 데이터 활용체계의 구축 △충남도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데이터 전문 조직 구성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경주 교수는 도민 체감형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충남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 이동욱 사업담당부장은 충남도 데이터 정책 방향성과 과제, 오혜정 기획조정과장은 데이터분권과 충남연구원의 역할, 김영명 정책기획관은 충남도 빅데이터 분석업무 추진현황, 고재성 공간정보팀장은 충남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충남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

2019. 11. 21.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정 재점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논의

충남도의회는 11월 21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영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실태와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 등 노동환경을 점검해 개선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 또한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8년 IMF이후 비용절감과 고용탄력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확대돼 왔고, 이는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갈등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나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추진과정을 점검한 후 개선점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선영 의원이 좌장을, 김윤호 검임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웅열 조직국장(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장명순 지회장(충남도청 공무원지회) △김대현 의장(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이진숙 위원장(충청남도 인권위원회) △김기호(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호 교수(고려대학교)는 충청남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비정규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이 형식적 처우개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지 등을 잘 살펴 실질적 고용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충남도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이해하고 있었는가?(윤웅열 조직국장) △충남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환경(장명순 지회장)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김대현 의장)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는 정규직 전환이어야(이진숙 위원장) △충청남도 비정규직 관련 정책 추진현황과 정책과제(김기호 단체지원팀)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시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정규직 전환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지정근 의원

2019. 11. 21.

주민도 모르는 안심벨 디자인 일원화·통합관리 모색

- ❖ 위급상황 시 찾기 쉽고 편한 비상벨 디자인 표준화 제언
- ❖ 골든타임 확보 위한 '이기종' 비상벨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논의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1월 21일 천안 신방도서관에서 '안심벨 디자인 표준화 및 안전부서 체계 일원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주민들을 초청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 의원이 진행을,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과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강용길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심국보 대전중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장, 김종기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김범식 위즈너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 의원은 "최근 공원화장실 및 외진 골목길 등 치안 사각지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대상 범죄의 대안으로 떠오른 안심벨의 디자인 표준화와 이와 연결된 관계기관의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 확산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비상벨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도시안전 디자인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18년 강력범죄 전체 피해자의 84.4%가 여성으로 보고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 시행으로 안심벨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안심벨 신고건수 대비 오작동 건수가 무려 2.57배에 달하는 등 현실 속 안심벨은 '먹통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소업체 제품의 무분별한 설치로 사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벨이 지자체별 상이한 디자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되는 만큼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해 위급상황 시 간단한 조작법으로 안전 계층이

손쉽게 이용활용 가능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식 밸류마인 대표는 '범죄사각지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이기종 비상벨 통합방안'을 주제로 "현재 비상벨은 업체별 기술이 다르고 통합관리가 어려워 설치·운용상 효율이 저하되고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범죄 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벨 신고 및 대응 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강용길 박사는 "안심비상벨의 표준 디자인 개발을 통한 편리성과 일반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심비상벨에 투입돼야 하는 예산의 적정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제시된 안심비상벨의 표준 개발과 구축이 다른 아이템과의 연계 및 균형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심국보 팀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셉테드 적용을 통한 표준화된 안심벨의 보급 등 범죄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시군과 경찰청, 경찰서의 핫-라인을 구축해 협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종기 과장은 "안심벨 전면에 안내문구와 관리주체, 관할경찰서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주민 시인성이 뛰어난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체감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식 대표는 "공공서비스 체계인 안심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도입사업 자체만이 아닌, 도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한 의견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정책대안을 모색·발굴할 계획이다.

장승재 의원

2019. 12. 4.

“제2의 민식이 없어야”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보호방안 의정토론회

- ❖ 어린이·노약자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모색
-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5030 적극시행, 교통약자 사망사고 저감 기대



충남도의회가 ‘제2의 민식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지자체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서산소방서에서 ‘서산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약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승재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존과 다르게 장 의원이 발제와 진행을 동시에 맡았고,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소통하는 데 무게를 뒀다.

장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서산시 교통안전지수는 도내 꼴찌며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토론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어린이 사망사고의 약 40%가 대부분 하교시간과 보행자, 운전자 집중력이 저하되는 16~18시에 특히 많다”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모두가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분야별 연구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도 제고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민 선임연구원(보행교통·교통약자 분야)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특성을 설명한 후 “운전자는 보행자의 행동성향을, 보행자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김원철 연구위원(교통공간·안전 분야)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배리어프리(barrier-free·사회적 약자도 살기 좋도록 물리·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철학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은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설계 시 주민 의견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속도관리프로그램(Speed Management)을 병행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간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서산시의 ‘5030 속도관리 정책’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이민희 교통정책과장과 서산시 성기영 교통과장도 ‘5030 속도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식이법’ 개정 시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산동문초 김성진 교감은 “수십년간 서산 일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며 조마조마 했다”며 “지금이라도 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학교진입로 차도와 인도 분리, 통학로 확대 설치, 교통지도 전담 인력과 투명우산 등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김영규 교통안전시설담당관은 “올해 서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약 26% 가량 줄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조치할 때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더 좋은 의견은 항상 도의회와 관공서에 알려 달라”며 “각 기관은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 정책에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

2019. 12. 17.

내포신도시·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 모색

❖ 도시재생 방향 공유 · 활성화 정책 등 논의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홍성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2월 17일 홍성문화원에서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과 서용준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류철호 (사)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유환동 홍성문화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길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군과 함께 연합도시권으로 상생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주변 주민이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도시 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도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왕건 본부장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내포신도시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홍성 원도심에는 새로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준 전문위원은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류철호 회장은 홍성읍에 형성된 의료타운을 바탕으로 타 업종과 함께 특화거리 범위를 확대하고 내포신도시에는 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제안했다.

이종화 의원은 "충청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원도심 공동화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토대로 살기 좋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을 만드는 윈-윈(WIN WIN)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

2019. 12. 20.

충남형 농민수당 밑그림 그리자

❖ 농민수당 지급방식 · 과제 등 논의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2월 20일 청양군 소재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좌장으로 나선 김명숙 의원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인 식량 생산의 주역이자 기후환경과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생태 환경 교육의 장, 치유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익적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농민수당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충남형 농민수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심도있게 연구해 온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 · 사회적인 보상의 성격이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경영체 단위 ▲할증 방식 ▲개별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이사장은 “소농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방식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여성 농업인도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로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마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민수당 도입시 농가 · 비농가 경영체간 문제 등을 고민해 온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의 소멸 위기 속에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농민이 많아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논의하고 법제 개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 등 남은 과제에 대해 더 소통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첫 농민수당을 도입한 부여군에 관련 정책을 제안해 온 부여군농민회 이근혁 사무국장은 3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한 ‘충남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내년 충남형 농어민수당 정책을 직접 시행할 충남도 박지홍 식량원예과장은 “농민수당 도입 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들으며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도 의원

2019. 12. 26.

전문가·주민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머리 맞대

❖ ‘마을사업 육성’ 의정토론회



갈수록 축소되고 고령화하는 충남지역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민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12월 26일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마을사업 육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도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가와바코리아(주) 윤기확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과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도 관련 정책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마을 사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소득 창출 등 공동체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확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마을 살리기(창생) 정책의 성공사례이자 일본 6차산업을 대표하는 원점인 군마현 가와바 마을의 성공 과정을 토대로 마을 살리기 노하우를 전했다. 가와바 마을은 인구 35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20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인배 실장은 마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중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6차산업 시대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윤선 박사는 마을기업 우수사례를 소개한 후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희 담당관은 “가와바 마을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을 살펴볼 때 충남도와 논산시에서 정책 추진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논산의 특화품목인 딸기와 양촌곶감, 강경젓갈, 연산대추, 오골계 등을 지역과 주민이 함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자인 센터장은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 교류를 통해 농촌지자체의 활로를 모색해 단순한 농산물 교류가 아닌 산촌유학 등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족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일 의원

2019. 12. 26.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모색

- ❖ 공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 학생·학부모 참여 위한 일과시간 이후 편성 ‘눈길’



충남도의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특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2월 26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일 의원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 기존과 달리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의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 해왔던 공주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여건의 변화로 그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공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등하굣길 안전, 버스노선 폐지 및 운행횟수 감축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 원도심 학교 통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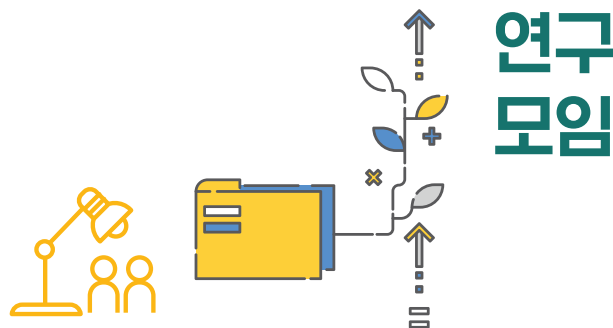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윤여관 교육문화위원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면 지역을 더욱 알아가는 동시에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보유한 건물을 기숙사와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공주를 찾은 학생들이 늘어나며 건강한 문화 교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주시의회 이상표·정종순 의원은 각각 교육 문화 개발 주체에 대한 고민과 원도심 학교 통폐합 해결책을 제시했고,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은영 대표는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어르신놀이협동조합 김은아 이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엄마들의 건의사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10. 18. / 여운영 대표

‘문화·관광’ 나아갈 길 찾는다

▶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진흥방안 모색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은 10월 1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의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과 관광 선행사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여운영 의원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박사, 가천대 심창섭 관광경영학과 교수,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김동규 본부장, 충남도 허창덕 문화산업팀장과 강병락 관광진흥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장훈 박사는 ‘지역 문화서비스 개선 방향’을, 심창섭 교수는 ‘최근 관광환경과 충남관광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충남 문화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급 효율화와 포용성 확대, 수요밀착형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관광 진흥 방안으로는 ▲독특하지만 친숙한 충남 만들기 ▲관광객이 기대하는 진짜 충남 ▲경쟁력 있는 충남관광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 가치에 부합하는 모두를 위한

관광 등을 내놓았다.

여운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문화·관광 전문·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10. 24. / 김명숙 대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연구모임, 마지막 현장방문

▶▶ 서울혁신파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견학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결과물로 제시하기 위한 마지막 현장방문에 나섰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을 비롯한 회원 8명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은 10월 24일 서울혁신파크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날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허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입주단체와 도우누리를 견학하고 운영현황과 노하우를 청취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첫 결성한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연구모임 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구체적인 보고서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11. 21. / 양금봉 대표

농촌복지 실현 연구모임 활동 ‘마침표’

▶ 마지막 회의 열고 회원 간 토론 등 활동사항 갈무리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11월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결성된 후 추진해 온 연구모임 활동사항을 돌아보고 운영 결과를 체계적인 결과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자리에서 농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최소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또 마을복지 추진 조직 구성과 전문가 양성 등 통합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금봉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농촌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복지실태를 살피고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 도정에 반영코자 마지막 회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모임 활동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활동을 통해 제언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 회원들은 결성 직후 가장 먼저 농촌마을을 둘러보고 우수사례로 꼽히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서천군 해바라기 마을을 방문해 농촌마을단위 지원사업 현황을 살폈고, 농촌 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 중인 서천군 여우네 도서관과 홍성군 밝담도서관을 찾아 운영상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홍성군 홍동면 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을 방문해 면 단위 의료시설 문제를 확인하고 농촌복지와 연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농촌복지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강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농민과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11. 26. / 오인철 대표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최종 점검

- ▶▶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활동성과 점검 · 교육정책 반영 모색
- ▶▶ 오인철 의원 “연구결과 교육정책 반영 노력 지속 추진”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대표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11월 26일 오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점검했다.

오인철 위원장을 대표로 관련 전문가 13명이 참여한 연구모임은 지난해 10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보건교육 저변 확대와 학생 건강 강화 방안 등 충남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 발전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회원들은 15개월간 협의회와 토론회 등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 위원장은 “연구모임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받고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관리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연구모임 활동 기간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대학급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해 내년부터 도내 과대학급 중 학생수 1500명 이상인 6개 학교에 시간제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를 이끌어 냈다.



제대로교육 연구모임

11. 28. / 한옥동 대표

제대로교육 연구모임 “빅데이터로 미래교육 정책 모색”

- ▶ 28일 5차 회의 열어 빅데이터 접목 공교육 강화 방안 등 논의
- ▶ 한옥동 연구모임 대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속 노력”

제대로교육 연구모임 한옥동 의원은 11월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충남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과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보·통계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활동과 연계한 학생 개별 맞춤형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정책본부장은 기초강연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해 개방형 콘텐츠 제공, 학습자 중심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을 담보하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한옥동 의원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지능형 학습 분석을 하고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는 등 개인별 맞춤, 학습평가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꼭 필요한 미래교육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제안으로 조직된 이 연구모임은 김석곤·김은나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교육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11. 29. / 조승만 대표

생기 넘치는 내포신도시 조성 모색

▶ 조승만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 내포신도시 활성화·시군 균형발전 방안 논의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11월 29일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조승만 의원이 좌장을, 청운대 창업 경영학과 송채규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과 우종석 신도시정책팀장, 김상홍 홍복읍 주민자치회장, 행정복지연구소 송병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채규 교수는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 및 시군 균형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우선 정주여건과 자족도시 조성이 중요하다”며 “홍성과 예산 및 인접 시군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스마트기술 등을 활용해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주여건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문희 담당관은 “1단계(2008~2020) 충남형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추진성과 및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중”

이라며 “기 수립된 금강권, 가로림만권, 천수만권 발전전략에 이어 삽교천권역의 종합적이고 연계 협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종석 팀장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수요를 창출해내야 하는 도시로 그동안 도 단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이전 만으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포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 기관·기업 유치와 도시특화전략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추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송병만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현 거주 주민의 만족감 없이는 외부 인구 유입은 어렵다”면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불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홍 회장은 “내포신도시 발전 저해 3대 요인인 축산 악취, 내포열병합발전소, 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승만 의원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2020년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

11. 29. / 전익현 대표

“상권활성화 도시재생전략 구축 의견 모은다”

▶ 전익현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 현장에서 민관 의견 종합 청취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구축 연구모임’은 11월 29일 장항전통시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 진행은 연구모임 대표인 전익현 의원, 발제는 부여문화마을협동조합 노재정 상임이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현대 장항전통시장 상인회장, 김민석 부여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임현규 장항읍새마을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지역 상권 변화와 실태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재정 이사는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자립적 경제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순환경제의 판을 키우고 시스템을 바꾸는 촉진자와 촉진 조직이 필요하고 마을과 상권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팀장은 “전통시장 지역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략 또는 계획 수립 시 포괄적인 전략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본·사업계획을 최대한 연계해 하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익현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인구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면서 “지역·배후·유동인구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지역협력형 상생상권 조성과,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시장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올해 3월 연구모임 발족을 시작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연구활동은 물론 현실성 있는 도시재생 방안 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 왔다.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연구모임

12. 5. / 김 연 대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 선도

▶ 데이터 기반 복지·보건 연구모임 최종 세미나 개최

‘데이터 기반 충남 복지·보건 연구모임’은 12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공희 위원장, 정병기 의원, 충남 연구원 김기흥 박사, SK 지오비전(Geovision) 최진영 팀장,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흥 박사는 ‘충남 사회적 농업의 지역 정책 접목방안’을, 최돈정 연구원은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도내 독거, 치매, 장애 노인의 거주지 데이터를 토대로 노인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공간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회가 도민 행복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

12. 16. / 한영신 대표

행정서비스 혁신 연구성과 정리

▶ 연구모임 최종 결과물 정리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은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모임 회원들의 노력을 구체적인 성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충남연구원 김진영 박사는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해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모임 대표인 한영신 의원은 “높아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걸맞도록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간 연구모임 회원들과 국내외 우수사례의 분석결과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마무리 회의 결과를 정리 후 최종 보고서를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충남 재정거버넌스 구축 연구모임

12. 30. / 이공휘 대표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 ▶▶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한 도의회 역할 강화 방안 등 지난 1년간 연구모임 정리 시간 가져
- ▶▶ 최종결과물을 토대로 조례 제정과 정책제안 등 후속조치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은 12월 30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공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연 문화복지위원장, 김명숙 도의원,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민, 집행부, 도의회가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총 다섯 차례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모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정원 회계사의 '충남도 결산들여다보기'와 재정성과연구원 강인재 원장의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충청남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에는 효율적인 충남도 재정 운영과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지난 1년간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성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짧은 시간 동안 충청남도의 건강한 재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생하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정리된 1년 간의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더 나은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최종보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작, 발간·배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10월 22일

유병국 의장은 스피러스 리솜에서 열린 탈석탄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10월 24일

이공희 의원, 김연 의원, 이선영 의원, 양금봉 의원, 황영란 의원, 조승만 의원은 스피러스 리솜에서 열린 전국자원봉사자 센터 대회에 참석했다.





10월 24일

유병국 의장과 이종화 부의장은 도의회를 방문한 필리핀 팜팡가주 포락시 대표단을 접견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25일

유병국 의장은 충청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10월 28일

이공희 의원, 전익현 의원은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0월 28일

안장현 의원, 정병기 의원은 덕산 스피라스 리솜에서 열린 충남노인복지협회 한마음 축제에 참석했다.



10월 31일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10월 31일

유병국 의장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식에 참석했다.



11월 12일

유병국 의장, 홍재표 부의장은 충남 전문건설회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11월 15일

유병국 의장은 충남 보훈공원에서 열린
충청애국선열추모제에 참석했다.



11월 18일

정광섭 의원, 전익현 의원, 김대영 의원, 지정근 의원은 충남 문예회관에서
열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1월 28일

유병국 의장은 아산터미널웨딩홀에서 열린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지원 협약식에 참석했다.



12월 9일

유병국 의장과 장승재 안건해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홍성군 홍성읍의용소방대에 마련된 고 박단비 구급대원 분향소를 찾아 분향·헌화하며 애도를 표했다.



12월 9일

유병국 의장은 예산 스피러스 리솜에서 열린 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 승리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12월 12일

유병국 의장은 태안 수협어업인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했다.



12월 26일

유병국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민 행복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 회기 : 8회 117일(정례회2회 59일, 임시회6회 58일) ※ 예비일수 : 23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

회기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 고
제317회 임시회	2. 11.(화) ~ 2. 21.(금)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새해첫날(1. 1.) • 설연휴(1. 24.~ 27.)
제318회 임시회	3. 18.(수) ~ 3. 20.(금) (3일간) ※ 본회의2, 상임위1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삼일절(3. 1.) • 국회의원 선거(4. 15.)
결산검사 (4. 17. ~ 5. 6.) : 20일 예정			
제319회 임시회	5. 11.(월)~5. 25.(월) (15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9, 공휴일4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어린이날(5. 5.)
제320회 정례회	6. 10.(수) ~ 6. 26.(금) (17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7, 예결위2, 공휴일4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현충일(6. 6.) • 도민체전(6. 11.~ 14.) • 결산승인시한(6. 30.)
제321회 임시회	7. 1.(수) ~ 7. 3.(금) (3일간) ※ 본회의3(상임위 1일 포함)	●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제322회 임시회	7. 14.(화)~7. 24.(금)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20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2020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제323회 임시회	9. 1.(화) ~ 9. 15.(화) (15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7, 공휴일4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0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9. 18.~10. 4.) • 추석연휴(9. 30.~10. 4.)
제324회 정례회	11. 5.(목) ~ 12. 16.(수) (42일간) ※ 본회의4, 행감10, 상임(특)위12, 예결위4, 공휴일12	● 2020 행정사무감사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1 본예산, 2020 추경 예산안 처리 ●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 수능일(11. 19.) • 예산의결시한(12. 16.) • 성탄절(12. 25.)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http://blog.naver.com/cncouncil>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https://www.instagram.com/cn_council

의회 방청 안내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방청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금지됩니다.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이메일 | shyel@korea.kr

전 화 | 041-635-5102

팩 스 | 041-635-5009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신뢰로 보답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